Entertainment p/17
오연서, 첫 사극연기 호평

metro
메트로 2015년 4월 24일 금요일 제3204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1
레알마드리드 4강 진출

강도야 거문도 놀러가자

한려수도 끝자락 두시간 뱃길… 선물같은 휴식처 p/15

이마트 구매중단 참돔회도 별미… 주말 코스 으뜸

CAM -1 2015-04-08 08:15:21 320
DVR 1 [352 * 240]

CAM -1 2015-04-08 08:15:26 059
DVR 1 [352 * 240]

CAM -1 2015-04-08 08:15:26 710
DVR 1 [352 * 240]

CAM -1 2015-04-08 08:15:27 710
DVR 1 [352 * 240]

딱 걸렸잖아 신문을 왜 뺐어? p/3

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칠레 칼부코 화산 50여년만에 분출 칠레 남부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칼부코 화산이 마지막 화산활동을 한 지 50여 년 만인 22일(현지시간) 오후 6시께 돌연 화산분출을 시작했다. 하늘 연해 먼지와 연기기둥이 수㎞ 하늘 위를 뒤덮었다. 화산은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1000㎞가량 떨어진, 관광지인 푸에르토바라스 인근에 있다. 칠레는 태평양에서 지진 활동이 빈번한 '불의 고리' 지역에 있으며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500개의 휴화산이 있다. 지난 3월에도 칠레 남부 빌라리카화산이 터져 연기와 용암을 뿜었으나 곧 가라앉았다. /연합뉴스

시진핑 뒤통수 때린 아베내각 각료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끝나길 기다렸다는 듯이 아베 신조 내각의 두 각료가 2차대전 A급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뒤통수를 때린 셈이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야마타니 에리코 공안위원장과 아리무라 하루코 여성활약담당대신은 이날 오전 아베 내각의 각료로서는 올해 처음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바 있다.

하루 앞서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중일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될 거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중국 내에서 나오는 상황이었다.

내각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디까지나 개인으로 참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상회담을 위해 총리관저 측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송병형기자

지중해 아프리카 난민선 희생자 추모 촛불 몰타에서 주민들이 22일(현지시간) 난민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을 켜는 모습(위)과 같은 날 이탈리아 로마의 번화가에서 800여명이 사망한 아프리카 난민선 사고 희생자들을 시민들이 추모하는 모습(아래). /연합뉴스

"김영란법도 통과됐다"

'이학수법' 위헌논란에 박영선 "국민적 여망" 강조

"많은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결과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의의를 설명하기에 앞서 꺼낸 말이다. 박 의원은 2월국회에서 이학수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이학수법 역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23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적 제3의길' 공동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삼성 3대 승계의 법적 문제와 이학수법' 심포지엄에서 "이제 우리 사회는 맑고 깨끗한 사회에 더해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막대한 불법이익을 누리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면 이학수법은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우리 헌법이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여타 기본권에 대해 보다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지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법률은 민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전체 법질서의 기념으로 새겨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그런 해석에 따른다면 이학수법이 정한 범죄수익의 보유자는 애초에 재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학수법에 대해 "입법학적 관점에서 그리 완결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위헌' 위헌이라는 형식적 법논리에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편의한 행위가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에 제시하고 있는 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법 상황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해결책의 모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친일재산환수법이나 5·18 특별법을 심판하면서 토로했던 시대감을 다시 복원하는 일"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당시 판결에서 "왜곡된 한국 반세기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이나 "과거사 청산의 정당성과 진정한 사회통합의 가치 등"을 강조했다.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법학)는 "삼성재벌의 불법에 대해서는 법집행자와 언론의 단호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관은 법질서 전체의 규범력을 가지고 양심에 맞는 해석을 통해 총수일가들의 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의지가 없다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되고 한국사회는 부패와 빈곤이 만연하는 금전만능의 무질서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역할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세간에서 이학수법의 1차타깃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 교수는 "그동안 시민들이 문제제기한 수많은 사건들과 의혹에 대해서 이 부회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상도와 시민으로서의 규범의식마저 의심하게 하는 침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경영일선에 나서지 말 것을 권하고 싶다"며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위험이고 그 고통은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정필기자 jpdi@metroseoul.co.kr

"무엇이 공평한 것인지 무엇이 기회 균등한 사회인지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합니다."

23일 서울대에서 열린 이학수법 심포지엄 /이정필기자

병무청 "입영탈락, 제도의 문제 아니다"

국방부 산하 병무청은 23일 메트로신문의 '입영신청 탈락' 제보광고와 관련해 "병무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군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며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입영신청자) 본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것을 제대로 선택해서 군대에 가야 한다"고 밝혔다.

메트로신문은 추첨에 의한 현행 입영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지면을 통해 입영신청 탈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제보를 받는다는 첫 광고를 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대학생들이 보통 (입영신청자의) 80%가량 된다"며 "본인이 1년 전부터 입영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영계획도 세우지 않고 연말에 본인선택제도도 하지 않고 세 번씩 기술자격도 없는데 3~4개월 앞두고 갑자기 군대에 가야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학생들은 이미 1년 전에 자기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매년 군대에 갔다"고 덧붙였다.

메트로신문은 최근 수차례 입영신청을 넣지만 모두 탈락해 1년 반 이상 입영하기 위해 애태우는 한 휴학생의 제보를 받았다. 입영제도의 문제점을 취재하게 된 계기다. 이 휴학생은 "최전방에 지원하기까지 했지만 탈락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입영신청 탈락' 제보를 받습니다 ☞ 제보하실 곳 yoona1@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은 현행 입영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입영신청을 넣지만 계속된 탈락으로 학업이나 생계 계획을 세우기 힘든 분들, 막연한 기다림에 청춘을 허비하는 분들, 영문을 모르는 탈락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문재인 '대선자금 특검' 요구…"이병기도 사퇴"

문 대표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 · 김 대표 "특사 의혹 조사 받으라"

'성완종 리스트' 사태가 변곡점을 맞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012년 대선자금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 직후 새누리당의 역공이 거세자 정국의 초점을 성완종 리스트에 묶어 두기 위한 강력한 재반격의 성격이 짙다. 노무현정부 말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두고 문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한 새누리당 일각의 공세를 더 두고 볼 수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벌어진 친박 게이트(성완종 사태)는 새누리당이 아직도 부패와의 유착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 캠프가 불법대선자금의 검은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 부패청산과 정치개혁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와 드러난 의혹의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특히 진실 규명과 관련해 문 대표는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며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든 박근혜 선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이든 누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경우 더더욱 돈의 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표는 "저와 우리 당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번 사안을 대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다"며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돈을 줬다고 고백한 사람은 죽어가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숨겨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진실 규명을 위해 문 대표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직에 있어선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에서 손 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에 대해 성 전 회장 특사 책임론으로 맞섰다. 김 대표는 "(문 대표가) 켓 찔리면 그것에 대해 조사를 한 번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특사 문제와 관련해 "더러운 돈 받고 사면 다룬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현정기자 lkd@metroseoul.co.kr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위)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연합뉴스

여당 공무원연금개혁 촉구 결의대회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CCTV 설치' 본회의 재도전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여야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두고 회견이 충돌했다. 여당은 비용문제를 이유로 네트워크 카메라도 인정하자고 주장했다. 야당은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더 크다며 반대했다. 여야는 간사 합의로 해당 문구 포함을 결정함으로써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서기자

감사원 "금감원, 채권단에 경남기업 특혜 압력"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워크아웃 과정에 독단적으로 개입해 2013년 10월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남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워크아웃 승인을 위해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분을 2.3 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출자전환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경남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또한 실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상감자를 결정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채권금융기관들은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은 구조조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 측이 금융기관 담당자를 부르거나 전화까지 걸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대승적 지원에서 동의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국장은 현재 금감원에서 퇴직한 상황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견이 발생할 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금융감독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 또 금감원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출자전환을 할 때 기준주가가 발행가보다 낮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대한 무상감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경남기업의 경우 당시 기준가(3750원)가 주식발행가(5000원)보다 낮은 상태였다. 이 규정들은 모두 무시됐다.

신한은행은 압력에 못 이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하도록 결정했다. 지난해 3월 결국 1000억원의 출자전환이 이뤄졌다.

한편 특혜를 준 이유에 대한 의문엔 뚜렷한 설명이 없다. 일각에서는 성 전 회장이 담당 국장이나 팀장을 직접 만나 청탁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서기자 redsun217@

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10.3% ⬇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소매요금(서울시) 기준 평균 10.3% 인하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지난 1월(-5.9%)과 3월(-10.1%)에 이어 이번이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의 요구대로 (인하폭을 더 늘려)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3%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인하를 계기로 올해 도시가스 요금은 누적 기준 전년 말 대비 총 24% 인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국내 약 1560만 가구의 연간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보다 평균 약 9만5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김서기자

서영식 펜 설명 듣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열린 협정서명식에 참석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식에 사용되는 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구 국무총리 사의 표명 이후 21일 온라인에서 정홍원 전 총리가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며 각종 패러디물이 등장했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영화 '백 투 더 퓨처'(1985)와 '반지의 제왕'(2001) 등에 정 전 총리의 얼굴을 합성한 패러디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연합뉴스

'Falling Back Secretary General' Jung Hong Won becomes Top Star on SNS.

Variety of parodies on the former Secretary General Jung Hong Won is spreading through the social network service (SNS) since the twenty third of this month. This started ever since the Secretary General Lee Wan Gu stated his resignation. Composite photographs of former Secretary General Jung and the scene from "Back to the Future"(1985) were made and posted the phrase 'Back to the Secretary General.' The picture was made every time he faced hardship and trouble. Also parody pictures of "The Lord of the Rings" (2001) and 'Edge of Tomorrow' (2014) are emerging again on SNS. You can find 'announcement of resignation' on the related key words ranking top eight on the list using the SNS trend analysis tool 'Social Matrix'. Secretary General Jung took his position From February 23, 2013 which was right after Park Geun Hye government and expressed his intention of resignation after the tragedy of Sewol ho on May 2014. But as two Secretary General candidates faced difficulties, he took part as the Secretary General until Lee Wan Gu started to take position in February. That's why he got the nick name 'Fall Back Secretary General.'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준권) 강사

'빽도 총리' 정홍원, SNS 톱스타 등극

'빽도 총리'로 불리는 정홍원 전 총리에 대한 각종 패러디물이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직후부터 시작된 일이다.

트위터 등 SNS에서는 영화 '백 투 더 퓨처'(1985)의 장면에 정 전 총리를 합성해 '빽 투 더 총리'라고 적힌 합성사진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 수차례 총리 낙마 사태가 반복될 당시 만들어진 사진이다. 영화 '반지의 제왕'(2001)을 패러디한 사진도 다시 돌고 있다.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2014)를 패러디한 사진도 마찬가지다. SNS 트렌드 분석도구인 소셜메트릭스로 '사의표명'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 '정홍원'이 8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2월 26일 정식 임명돼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사의를 밝혔다. 하지만 이후 2명의 총리 후보가 연달아 낙마하면서 이완구 총리가 취임한 2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했다. 이로 인해 '빽도 총리'란 별명이 붙었다.

'우로보로스'가 된 사람들

최치선이 보는 세상만사

자기 꼬리를 먹는 뱀이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플라톤이 처음 말한 '우로보로스(Ouroboros)'다. 그리스어로 '꼬리를 문 뱀' 또는 '영원히 자기 꼬리를 먹는 뱀'의 뜻이다. 무한반복, 영속성, 순환고리 등으로 표현된 신화적 생물이다. 하지만 '우로보로스'의 단어 이면에는 자기 꼬리를 먹을 만큼 어리석고 욕심많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비꼬는 뜻도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성완종 리스트로 떠들썩한 지금의 모습이 꼭 우로보로스와 닮은 꼴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인사에서 비롯된 인사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성완종 리스트의 주인공들 역시 자기꼬리를 먹는 셈이 되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도를 넘어선 욕심 때문이다. 계속해서 가지려고만 하다 결국엔 스스로 파멸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자승자박'이 된 셈이다. 대통령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수첩에서 찾았다. 총리인선만 벌써 6번째다. 인사가 만사란 옛말은 박 정권에서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이완구 총리의 사퇴와 박상옥 대법관 후보문제 등 꼬리를 기차럼 끌었이 되풀이되는 측근 모시기가 결국 자기발목을 잡은 셈이 되었다. 최근 불명예 사퇴한 박용성 중앙대 재단이사장의 막말이메일 파문도 자기의 힘을 과시하다 생긴 일이다. 이렇게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위해 그리고 더 많이 뺏어오기 위해 필요한 대상만 찾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도 나온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회사와는 달리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보살피는 정부의 수장들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행사하는데 개인적 욕심을 개입시키면 안된다. 지금까지 일어난 비리와 부정부패가 모두 사심을 발동시켜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은 나랏일을 보는 사람들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 이 시대에 흠없이 완벽한 인물을 찾기란 쉽지 않지만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장관후보자에게 제공되는 200여개의 질문지가 있는 '자기 검증서'와 인사청문위 주위의 평판 등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적합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본다. 후보자 본인 스스로도 자기검증서에 하나씩 체크하다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한눈에 보인다. 국민의 공복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는지도 가늠할 수 있다. 절대 정당, 특정 계파나 인연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만약 계속해서 사심으로 권력을 이용하면 결국 자신의 꼬리를 먹는 우로보로스가 될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의 잘못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을 기억한다.

"유능한 공직후보자를 상시 발굴해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쓰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한 대통령의 말이 허언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시인

귀뚜라미편에서 영세업자 두 번 울리는 동반위

기자 수첩

박상길 <산업부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업용 펠릿 보일러 영세사업자들을 두 번 울렸다.

지난해 업계 최대 이슈였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불발시켰고, 올해에는 국고보조율과 유가 하락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데도 여전히 대기업인 귀뚜라미의 편에 서서 상생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넥스트에너지코리아와 규원테크 등 중소 펠릿보일러 제조업체 7곳은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과정에서 합의사항이었던 귀뚜라미의 유통망 확대, 공격적 마케팅 등을 동반위에 요청했지만 조정에 실패했다.

영세사업자들은 계속된 협의난항에 이달 초 동반위 사무실이 있는 서울 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 앞에서 생존권 확보를 요구하며 귀뚜라미의 시장 철수를 외쳤다.

이들은 100억원에 불과한 시장에서 귀뚜라미가 거대 자본과 350개가 넘는 전국 유통망을 기반으로 덤핑에 가까운 할인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귀뚜라미가 제대로 된 AS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등 돌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의 고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계속해서 축소되는 정부 예산과 국고보조금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예산은 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억원보다 40% 축소됐다. 국고보조금 역시 지난해까지 50%였으나 올해에는 30%까지 감축됐다.

동반위 관계자는 "펠릿 시장도 다른 품목들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양측의 의견 조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의 말대로 시장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정답이다. 상생취지로 만들어진 동반위가 귀뚜라미를 도와주는 것은 설립 취지와도 어긋난다.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파견 ▷지역발전위원회 파견 김명수
◇새만금개발청
△3급 승진 ▷운영지원과장 백노혁
◇농촌진흥청
△승진 ▷기술협력국장 황정환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중앙민원사무소장 박재율 △과장급 전보 ▷위원장 비서관 김철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임진홍 ▷심판행정담당관 백성수 ▷국민신문고과장 정혜영 ▷보호보상과장 김재창 ▷민간협력담당관 박성수 ▷국민신문고과장 정혜영 ▷보호보상과장 정재학

부고

▲김진홍씨 별세, 선규(세종TV 편집편)씨 부친상 = 23일 오전 3시,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 042-259-1292

▲오순남씨 별세, 정석범(남도일보 기자)씨 외조모상 = 22일 오후 2시, 광주한국병원 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9시 ☎ 062-380-3444

▲이순예씨 별세, 유진두(경기일보 여주 주재기자)씨 모친상 = 23일 오전 7시, 여주고려병원 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9시 ☎ 031-881-4490

▲김성규씨 별세, 진구(전 영동군청 산림과장)씨 부친상 = 22일 오후 5시, 영동제일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4일 오전 8시 ☎ 043-744-1143

▲김소복씨 별세, 이유진(강북철공소 대표)씨 모친상, 서석원(옛날농장 부이점 대표) 류자영(한국수월인은행 기업금융3부 팀) 김선희(우림성대 대모여사) 이상길(옛날농장 금호점 대표) 이지훈(㈜한석구 부장)씨 빙모상 = 22일, 일은연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24일 오전 11시 ☎ 055-636-4800

▲유길연씨 별세, 유축영(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축성(KT 서광주지사장) 종연씨 모친상, 이그랑씨·김사시씨 부친상, 김환곤(목포 영흥고 교사) 남궁민(컨설턴트)씨 장인상, 이숙자(전 한국물렉스 부장) 엄순선(중계 아동병원 원장)씨 시부상 = 23일 오전, 광주 서구 매월동 천지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9시 ☎ 062-527-1000

▲성순옥씨 별세, 김병주(중광산업개발 관리전무)씨 빙부상 = 23일 낮 12시,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5일 오전 8시 ☎ 042-471-4684

금융권 '복합점포' 확장 경쟁… 영업망 재편

저금리 저성장 기조 · 보험업 입점추진 영향

금융권에 은행·증권 업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복합점포 개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맞아 수익성 제고를 위한 영업망 재편에 나선 것이다. 이는 은행권의 점포수 줄이기와 반대되는 행보로 달라진 영업환경에 맞춘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보험업을 복합점포에 포함할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융권 전반적으로 복합점포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은 오는 28일 서울 중심지에 복합점포 3곳을 연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업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올해 2월 삼성증권과 상호 거래 확대와 신사업 공동발굴 등을 위한 포괄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복합점포 개설은 업무제휴의 후속 작업으로 이뤄졌다.

양 사의 점포는 본점영업부와 광양 포스코지점, 삼성증권 삼성타운지점 등 세 곳이다. 고객은 이곳에서 종합 금융자산 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계열사 간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업종 간 경쟁력을 결합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미 NH농협금융과 기업은행 등은 올해 초 복합점포를 개설해 영업을 시작했다. 지난 1월 NH농협금융은 광화문에 'NH농협금융 PLUS+센터'를 열었다.

이는 금융규제개혁 시행 이후 개설되는 제1호 복합점포로, 기존 점포와 달리 은행과 증권 영업점 간 칸막이를 없앤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센터에는 NH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이 공동으로 들어와 고액 자산가와 법인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 은행·증권의 종합금융자산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은 다른 영업창구로 이동하지 않고도 한 장소에서 은행·증권 상품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또 공동 상담실에서 은행·증권 양사 직원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협금융은 은행·증권 통합계좌개설과 공동 우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복합점포를 거래하는 고객에게 원스탑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으로 여의도 NH농협금융PLUS+센터 등 최대 10여 곳의 복합점포를 서울과 지방 주요도시에 신설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IBK고객센터 1층에 은행과 증권을 결합한 복합점포인 'IBK 한남동 WM센터'를 개점했다. 이는 기존 PB센터에서 확장된 형태로 기업은행은 서화공단지점과 강남지점, 반포자이지점 등 3곳에 WM센터를 추가로 개설, 운영 중이다.

신한금융도 지난 2012년 그룹 차원에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WM·CIB 사업부문을 출범시켰다. 또 지난해 기존 PB센터 25개점을 PWM(Private Wealth Management)센터로 탈바꿈했다.

이밖에 하나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40개, 10여개의 복합점포를 운영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과 증권사로 구성된 금융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입점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내달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복합점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의 입점문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교보생명 "2014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 교보생명은 23일 지난해 동안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담은 2014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사람, 그리고 미래'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제공

2030세대, 부동산 러브콜

전세난·저금리 등 영향

부동산 매매시장의 비주류로 분류되던 20~30대가 내 집 마련에 나섰다. 기존에는 40~50대 중장년층의 부동산 계약률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젊은층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대엔지니어링이 분양한 '힐스테이트 서천' 아파트의 계약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48%로 집계됐다. 40대가 35%로 뒤를 이었고 50대 12%, 60대 이상 5% 순이다.

올 1월 분양된 GS건설 '한강센트럴자이 1차' 역시 20~30대의 계약률이 43%에 달했다. 다음으로 40대 29%, 50대 19%, 60대 9%의 비율을 보였다.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11월 공급한 '송도 퍼스트파크' 도 85㎡ 이하 중소형에서는 20~30대가 37.8%를 차지했다.

2030세대의 청약 열풍에 가세진 가장 큰 이유는 전세난 때문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차라리 집을 사자는 생각에 분양시장으로 발길을 돌린 것이다.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8월과 10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낮췄다. 현재 기준금리 1.75%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2.0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가뜩이나 전세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돈까지 쉽게 빌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자 내 집 마련에 나선 젊은 세대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저금리 기조로 돈을 모으기 어려워지면서 대표적인 수익형 상품인 오피스텔 투자를 선택하는 2030세대도 등장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광교 견본주택에 몰린 방문객들이 모형을 보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현대엔지니어링이 공급한 '힐스테이트 광교'와 대우건설 '마포 한강2차 푸르지오' 오피스텔은 각각 20~30대 비율이 33%와 23%로 파악됐다.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소형화로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되는 것도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전세난에 저금리 기조와 소형평대의 높지 않은 분양가가 더해져 젊은층이 부동산 매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 상한가 폐지로 매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큰 변동이 없다면 한동안은 젊은층의 매매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원기자

서울 소형아파트 매매가 중대형 추월

서울 소형아파트와 중대형아파트간 매매가격 차가 크게 줄었다. 동작·서초 등 일부 자치구는 전용 85㎡ 이하 소형 아파트가 중대형 아파트값을 추월했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6년 말 서울의 전용 85㎡ 이하와 85㎡ 초과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 격차는 772만원 수준이었다. 2006년은 수도권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로 재건축 단지와 중대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소형·중대형아파트 가격 격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기 시작했다. ▲2009년 (563만원) ▲2010년 (536만원) ▲2011년 (456만원) ▲2012년 (412만원) ▲2013년 (353만원) ▲2014년 (324만원) ▲2015년 (313만원) 등 계속해 격차가 줄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와 인구구조 변화, 전세난 등으로 중소형 면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 일부 지역은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3.3㎡ 매매가격이 중대형을 넘어섰다. 2006년 말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전용 85㎡ 초과 아파트가 85㎡ 이하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았다. 그러나 올 들어 동작·서초·금천·성북 등 8개 자치구에서는 소형이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를 추월했다. 동대문구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 가격이 1292만원으로 85㎡ 초과 아파트(1154만원)와 비교해 138만원 비쌌다. 이밖에 ▲동작구(133만원) ▲관악구(109만원) ▲금천구(8_만원) ▲성북구(82만원) ▲강북구(78만원) ▲서초구(66만원) ▲서대문구(5만원) 등 8개구에서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더 높게 형성돼 있다.

아파트 신규 공급 역시 소형 면적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용 85㎡ 초과 아파트가 전체 공급 물량에서 35% 정도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20% 대의 수준으로 줄었다.

/윤정원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편집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01
2005년 9월 20일 정기간행물등록 서울특별시 가00036

한화생명, 성장세 뚜렷한 中·인니 공략 가속화

인니, 10년간 15% 이상 성장 — 최근 우리나라와 협력 강화
중국, 올해 내 영국 제치고 세계 3위 보험시장 될 듯

김연배 한화생명 부회장과 차남규 사장이 잇따라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등 한화생명이 현지 보험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차남규 사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현지 법인을 통한 공격적인 영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지법인의 설계사 규모를 650명에서 13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약257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현지법인은 올해 안에 전국 주요 거점 영업망 구축, 방카슈랑스 채널 확대 등 공격적 영업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10월 설립된 현지법인은 지난해 단체영업조직을 구축해 은행대상 신용보험, 학생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퇴직연금상품 등 상품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다.

김연배 부회장은 지난달 말 중국법인인 중한인수를 방문했다.

중한인수는 현지기업인 국무그룹과 합작 설립한 법인이다. 이번 방문에서 김 부회장은 띵강성(丁康生) 국무그룹 이사장과 만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어 신계약 보험료 기준 저장성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사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항저우 지역단을 방문했다.

이처럼 한화생명이 잇따라 중국과 인도네시아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로는 현지 시장의 높은 성장세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생보시장 규모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2%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 7년간 6% 내외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생보시장의 성장률은 연평균 16.6%에 달한다.

2012년 기준 생명보험 가입자가 전체 인구(2억5000만명)의 약 4.1%에 불과해 추가 성장가능성도 높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당국이 금융사의 상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점도 국내 보험사에게는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생보시장도 거대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중국 생보시장의 수입보험료는 1조2690억 위안(한화 221조8512억원)에 달한다. 매년 7~8% 이상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이 같은 성장세에 중국 보감위는 올해 내에 중국시장이 영국을 제치고 세계 3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현재 외국계 생보사의 현지시장 점유율은 5.6%에 불과해 시장 선점을 통한 경쟁에서도 유리하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전체 운용자산(79조원) 중 해외자산 투자비율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인 11%로 증가했다"며 "중국, 인도네시아 시장의 성공적 진출을 바탕으로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공공-민간 손잡고, 수요자끼리 뭉치고

부동산 시장도 '협업' 바람

서로의 강점을 키워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컬래버레이션(협업) 바람이 부동산시장에도 불고 있다. 기업과 기업, 공공과 민간이 손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는 협업 전략이 최근 잇달아 시도되는 모습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가 자금 부담은 줄이면서 수익은 공유하는 공공·민간 공동 프로젝트로,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건설과 분양을 맡는 방식이다.

LH는 공사비를 민간에서 조달해 부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민간건설사는 초기 비용(토지비) 부담 없이 사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앞서 LH는 지난 1월 대구 금호지구에서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와 함께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1호인 'e편한세상 대구금호'를 공급해 성공을 거뒀다. 평균 3.86대 1, 최고 12.8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 1순위 마감을 기록한 바 있다.

최근 같은 사업 방식으로 LH가 대림산업과 함께 인천 서창2지구 10블록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서창'역시 최고 5.84대 1로 전 타입 순위 내 마감됐다. 서창2지구에서 분양한 첫 브랜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830만원 선으로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올해 LH가 계획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예정 물량은 4998가구다. 화성동탄2 A99블록 1067가구를 비롯해 ▲화성동탄2 A91블록(812가구) ▲인천서창2 5블록(1160가구) ▲논산내동2 C-1블록(756가구) ▲평택소사벌 B-1블록(566가구) ▲익산배산 40블록(637가구) 등이다.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이 합쳐진 공공임대리츠사업도 뜨고 있다. 공공임대리츠사업이란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리츠가 매입해 사업을 시행하고 LH는 주택건설과 공급, 분양전환 등의 자산관리업무를 맡는 방식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민간은 국채금리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이 사업을 위한 5개 기관투자자를 선정하고 민간자금 7550억원을 유치했다. 시범사업으로 하남미사, 화성동탄2, 김포한강, 평택소사벌, 시흥목감, 오산세교, 광주선운 등 7개 택지지구에서 리츠 1·2호를 설립했다.

/박선옥기자 pso@metroseoul.co.kr

외환은행 콜센터 서비스 12년 연속 1위한 비결은? 외환은행은 지난 22일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실시된 KSQI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조사에서 시중은행 콜센터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3개 업종 243개 기업과 기관 콜센터를 대상으로, 약 2만4300회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했다. 김한조 행장(사진 오른쪽)과 한국능률협회 CS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이 인증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환은행 제공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자사주 2725주 매입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1일 김정태 회장(사진)이 하나금융 주식 2725주를 매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주가 금리 인하 우려 등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해 지주의 내재가치에 비해 저평가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회장은 이번 자사주 매입으로 총 5만100주를 보유하게 됐다.

이와 함께 김병호 하나은행장은 2000주,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1000주를 매입하는 등 그룹내 여러 임원들도 자사주 매입에 동참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최고경영자의 자사주 매입은 그만큼 경영 상황을 잘 아는 위치에 있는 CEO로서 회사의 자산과 실적 대비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 되었다는 반증"이라며 "조만간 주가가 제평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란기자 miran0203@

LIG손보, 업계 최초 3년 연속 'WA인증마크' 획득

LIG손해보험은 23일 자사 홈페이지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웹와치로부터 3년 연속 '웹접근성(WA)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WA인증마크는 국가표준지침을 잘 준수해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만 부여되는 국가공인 인증마크다.

LIG손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 프로그램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동영상 자막 기능을 홈페이지에 추가했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 2013년 2월 WA 인증 최초 획득 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면 전문가 사용자 심사 등 3단계 품질 검증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 3년 연속 인증은 보험업계 최초다.

이용우 LIG손보 고객컨택센터장은 "이번 인증은 홈페이지에 웹접근성과 관련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쉽고 빠르게 업무처리가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2014년 국민안전처 선정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대통령표창)
한국남부발전

펀드슈퍼마켓 출범 1년… 계좌 95% 흑자

평균 투자수익률 5.26% "핀테크로 성공기반 마련 온라인 생태계 개척할 것"

[illegible]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신규서비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펀드온라인코리아 제공

펀드슈퍼마켓 투자자의 평균 투자수익률은 5.26%(누적)이며 투자자 중 95%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슈퍼마켓 전담법인인 펀드온라인코리아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신규서비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설명회를 열고 '펀드슈퍼마켓 투자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펀드를 매매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이날 선보였다.

펀드슈퍼마켓은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온라인에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직구' 서비스다. 펀드슈퍼마켓 수수료는 평균 0.34%로 다른 경로의 평균 수수료에 비해 0.5%포인트 낮아 투자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4월 투자자들에게 첫 선을 보인 펀드슈퍼마켓은 지난 17일 기준 총 8만9926계좌가 개설됐고 투자금액은 4835억원에 이른다. 투자자들은 1인당 평균 2.4개 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5개 이상 펀드 투자자들이 평균 7.9%의 성과를 올린 반면 1개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평균 3.64%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 개 펀드에 분산 투자한 투자자들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투자된 펀드는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주식펀드'다. 다음으로 '신영고배당주식펀드', '한국밸류10년투자주식펀드' 순이었다. 자산운용사별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가장 많이 투자됐으며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펀드온라인코리아 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기존 펀드 투자자는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해 긴 상담시간을 들여 가입하거나 판매직원이 권유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며 "펀드슈퍼마켓은 다양한 판매채널을 제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모든 펀드를 비교 검색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고 자평했다.

펀드온라인코리아에 따르면 공모펀드시장은 지난 2012년 134조원에서 지난해 126조원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온라인 펀드시장은 1조5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상승했다. 다만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서비스되다 보니 투자자들이 발품을 팔아야만 가입이 용이했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904개 펀드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시작한 펀드슈퍼마켓은 지난 22일 기준 1180개까지 펀드상품을 늘렸다. 펀드온라인코리아가 파악한 개인펀드고수는 1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평균 9개 펀드(평균투자금액 2억1000만원)에 분산투자해 15%의 성과를 내고 있다.

펀드슈퍼마켓은 최근 자산운용사가 직접 자산의 펀드와 회사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운용사 브랜드 페이지'를 신설하는 등 기존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자문현 펀드온라인코리아 대표는 "펀드슈퍼마켓은 투자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기존 펀드 판매시스템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과거 금융투자시장이 판매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점으로 인해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펀드슈퍼마켓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한 새로운 대안적 펀드 투자 채널이라는 것.

자 대표는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투자전문가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온라인 투자 생태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핀테크를 선도하는 회사로서 높은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증권사 "시장 규모 107조원… 퇴직연금 잡아라"

업계, 상품권 이벤트 봇물 신규 고객유지 경쟁 치열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퇴직연금(IRP)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IRP란 직장인이 노후 대비 자금을 스스로 쌓아가거나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찾아쓰기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07조685억원으로 1년 사이 20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단 한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기존 가입 고객, 타사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상당 상품권을 제공하는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IRP 더블 업 이벤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는 다양한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원금보장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신탁계좌로 구성돼 있다. '100세시대 IRP'는 투자 성향에 따라 원리금보장 상품부터 실적 배당형 상품까지 다양하게 투자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벤트 기간 중 해당 상품에 가입하거나 타사에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NH투자증권이 추천하는 운용사의 펀드에 적립식으로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는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혜택을 제공한다.

하이투자증권은 적립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거나 타사 연금저축계좌를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상품권과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Yes IRP 이벤트'를 오는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적립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연 7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연간 최대 92.4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적립 IRP 계좌만 개설해도 추첨을 통해 100만원(1명), 50만원(2명) 여행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하는 '연금동맹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벌인다.

이번 이벤트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과 기존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가입 고객이 연금저축계좌를 추가로 가입하면 문화상품권 1만원을 증정한다. 다만 판매에 300만원 이상을 매수하거나 3년이상 약정을 하고, 월 20만원 이상 매수 신청을 해야 한다.

/이경주기자 lklu@

SK증권, ELS 2종 공모 연 수익률 16.8% 추구

SK증권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공모한다.

제1504회 ELS는 삼성화재 보통주 및 현대글로비스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조기상환형 원금비보장 상품이다. 두 기초자산이 매 4개월 조기상환평가일마다 최초기준가격의 95%(4개월, 8개월, 12개월), 90%(16개월, 20개월, 24개월), 85%(28개월, 32개월, 36개월) 이상이면 연 16.2%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조기상환 되지 않고, 만기평가일까지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대비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연 16.2% (총 48.6%)의 수익을 지급한다.

제1505회 ELS는 현대차 보통주 및 NAVER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조기상환형 원금비보장 상품이다. 두 기초자산이 매 4개월 조기상환평가일마다 최초기준가격의 95%(4개월, 8개월, 12개월), 90%(16개월, 20개월, 24개월), 85%(28개월, 32개월, 36개월) 이상이면 연 16.8%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조기상환 되지 않고, 만기평가일까지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대비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연 16.8% (총 50.4%)의 수익을 지급한다. /김보배기자

자녀 "상속 필요없다" 부모 "부양 필요없다"

NH투자證 '부모-자녀간 인식차이' 설문

상속이나 부모부양, 자녀지원 등과 관련해 부모세대보다는 자녀세대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와 부모세대간 인식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2015 부모·자녀 세대 간의 인식차이'를 주제로 서베이를 실시하고 23일 이 같이 밝혔다.

설문 결과 자녀세대인 젊은 층은 부모세대인 고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삶에 보다 더 독립적인 자세를 보였다. '상속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되도록 늦게 받으려 하고 부모의 지원으로부터도 빨리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였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부모세대는 상대적으로 상속을 빨리 해주려는 경향과 되도록 오랫동안 자녀를 지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부양과 관련해서도 자녀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이었으며, 오히려 부모세대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원하겠다는 부모용돈의 규모도 젊은 세대일수록 많은 금액을 제시했다.

이윤학 100세시대연구소 소장은 "자녀세대들은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반면, 부모세대는 최대한 자녀에게 더 많이 주고 덜 의탁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위 '못된 자식', '염치없는 부모'가 아니라 '착한 자녀', '따뜻한 부모'의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김보배기자

현대차 1분기 영업익 1조5885억… 전년比 18.1%↓

신흥국 환율·SUV 등 수요 변화대응 부족 총체적 난국

현대자동차가 4년만에 사상 최저 영업이익을 기록해 어닝쇼크에 빠졌다.

현대차는 1분기 기업설명회에서 영업이익 1조5880억원, 매출 20조9428억원, 당기순이익 1조9833억원의 실적을 23일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21조6490억원) 대비 3.3% 감소했고 전기보다 11.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조9384억원) 대비 18.1%나 감소했고, 전기(1조8757억원)보다 15.3%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기록해 전년 동기(2조281억원) 대비 2.2% 감소했다.

판매대수 부진이 실적악화로 이어진 1분기였다. 중국·미국 시장에서의 판촉 경쟁 심화와 SUV 케파(공급능력)부족, 미국 인센티브(할인율)증가 등이 실적 악화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국내외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한 118만2834대를 판매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한 15만4802대를 판매했고, 해외시장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3.6% 감소한 102만8032대를 판매했다.

이 사장은 "유로화와 루블화, 브라질 레알화 등이 통화 약세를 보여 현지 수요가 줄어든 것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내 자동차 수요를 2016년 1680만대로 예상하고 미국2공장 증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자국 브랜드 충성도가 강한 픽업트럭시장 진출도 조심스럽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출시 예정인 LF소나타, 신형 투싼의 신차효과로 향후 실적 개선을 전망했다.

이 사장은 "신흥국 환율 영향으로 현지공장에 원가율이 상승하고 현지의 내수수요가 둔화돼 1분기 손익에 영향을 미쳤지만 신형 투싼의 순차적인 글로벌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어 신차효과로 인한 2분기 실적 개선을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중국시장에 대해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정책, 보수적인 영향 등으로 소비위축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며 "수요가 브랜드력이 뛰어난 고급차와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 토종 SUV구매에 소비가 늘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단기적으로 인센티브 전략을 내세워 대응할 것이라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신형 투싼이 10월에 출시 예정이다.

이어 이 사장은 미국시장 주력차종인 엘란트라 인센티브 증가도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승용차 시장이 줄고 SUV 시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당시 케파(생산능력)가 부족한 것도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형 투싼 글로벌 출시로 향후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며 "중국 창저우 공장, 충칭공장을 통해 중국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인도와 브라질 같은 신흥시장에서도 현대차 시장 지위가 향상되고 있어 경제가 안정되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성운기자 yong@metroseoul.co.kr

태양광을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공중전화부스 충전소가 지난 2월 서울 무산동의 한 이면도로에 처음으로 설치됐다. /연합뉴스

컨트롤타워 부재… '전기차 사업' 겉돈다

정부지원 불만 참여 소극적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민간 참여를 유도해 4만4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가시적인 지원책이 없고 전기차 사업 육성을 총괄하는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도 없기때문이다. 부처별로 전기차 육성 관련 기능이 분산돼 일관되고 신속한 지원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올해부터 3년간 민간 중심의 유료충전서비스 사업, 배터리 리스 사업 등을 신설해 총 575기의 급속 충전기, 총 4만4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중고 매매, 보험, 수리 등 전기차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올해 수립하고 급속 충전 인프라를 전국 단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개인용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고 2017년엔 배터리 리스, 유료충전사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당초 밝힌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량(누적) 100만대보다 상당히 후퇴한 수치다. 대기업들이 전기차 사업에 참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시장이 확대될 것을 대비해 내년 중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단계라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새누리당 간담회에서 현대차는 수소차 교통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등 정부지원책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이같이 대기업들이 전기차 사업 진출을 꺼리는 데는 정부에 강력한 정책지원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배터리 리스사업 민간 유료 충전사업은 산업부, 보조금 지원과 보급차량 다변화·공공급속충전시설 확충은 환경부가 맡고 있다. 또 세제 지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카셰어링과 렌터카 등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다.

김필수 전기차리더스협회장은 "정부 보조금 등 지원만으로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범정부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정치와 기업이 공감하는 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유재 기간을 통한 선진형 보급모델 제시 ▲중저속 전기차 지원 관련 입법 제정 등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사업과 관련, 공동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전기차 관련협의회에서 부처간 이견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shs@

'빅3' 타이어사, 中시장 죽쒔다

금호·넥센 낙폭 커… 상하이모터쇼 효과 글쎄

서울모터쇼에 불참했던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3사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상하이모터쇼에 모였다.

23일 금융감독원 및 각사 IR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6조6795억원, 영업이익 1조311억원의 실적을 냈다.

전년 대비 매출은 5.5% 줄고 영업이익은 1억원(0.009%) 감소한 수치다.

이 같은 매출 하락은 중국 시장에서의 지속된 판매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한국타이어의 중국 시장 매출은 2013년 4분기 2520억원에서 지난해 1분기 2830억원으로 줄였다.

지난해 2분기 2660억원에 이어 3분기 2580억원, 4분기엔 2430억원까지 떨어졌다.

사측은 원재료비 하락에 따른 판가 하락과 더불어 시장 공급 과잉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초고성능 타이어(UHP, Ultra High Performance tire) 판매 확대를 통한 질적 성장을 목표로 세웠다.

실제 한국타이어의 UHP 매출은 2013년 4분기 780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910억원으로 16.7% 증가됐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매출 3조4378억원, 영업이익 3583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전년 대비 매출은 2.04% 줄고, 영업이익은 3.56% 증가한 규모다.

금호타이어 역시 지난해 중국 법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1분기 2320억원, 150억원에서 △2분기 2180억원, 110억원에 이어 △3분기 2160억원, 40억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14.8%, 31.3% 감소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매출 1조7587억원, 영업이익 2085억원의 실적을 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76%, 영업이익은 17.79% 증가한 수치다.

중국 지역 매출은 지난해 1분기 1160억원에서 2분기 842억원으로 떨어졌다. 그해 3분기 779억원까지 떨어졌다가 4분기 908억원으로 회복됐다.

/이정필기자 roman@

SK하이닉스, 비수기에도 날았다

1분기 영업익 1조5890억원
현금자산 규모 1930억원 ↑
실적·재무개선 두토끼 잡아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 1조5890억원, 당기순이익 1조2550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1조570억원) 대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50% 증가했고, 당기순이익(8020억원)은 61% 증가했다.

1분기 SK하이닉스의 매출액은 4조8180억원이다. 계절적인 비수기 진입에 따른 출하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전분기(5조1480억원) 보다 6% 감소했다. 그러나 수익성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 운영과 생산성·수율 향상 등 원가절감을 통해 영업이익률은 전 분기 대비 1%포인트 증가한 33%를 기록했다.

1분기 D램 출하량은 PC와 컨슈머 D램 수요 감소를 서버 D램이 일부 상쇄해 전 분기 대비 5% 감소했다. PC D램 가격의 약세에도 서버와 모바일 D램 가격의 상대적인 안정세로 평균판매가격은 4% 하락했다. 낸드플래시의 경우 지속된 모바일 신제품 효과 등으로 전 분기와 동일한 출하량을 달성했고, 평균판매가격은 7% 하락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D램 시장과 관련해 모바일 중심의 수요 증가로 우호적인 시장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낸드플래시 시장도 모바일용 제품 수요 증가 및 SSD 시장 확대 등에 따라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분기에 SK하이닉스는 20나노 중반급 D램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20나노 초반급 D램의 성공적인 양산전개를 위한 준비를 완료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버와 모바일 시장을 중심으로 DDR4 제품 비중을 확대해 DDR4 시장 전환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낸드플래시는 10나노급 TLC 제품을 2분기부터 본격 출하해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3D 제품의 경우 파일럿 생산을 통해 연내 고객과의 검증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재무 안정성도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1분기말 기준 현금성 자산의 규모는 4조246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930억원 증가했다. 차입금은 3조5720억원으로 6030억원 감소했다. 차입금 비율은 19%이며, 특히 순차입금비율이 -4%를 기록해 현금성 자산이 차입금을 초과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동남아에서 잇따라 'SUHD TV'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파빌리온 몰에서 개최된 삼성전자 'SUHD TV' 출시 행사. /삼성전자 제공

삼성 'SUHD TV' 동남아 공략 가속

말레이 등 9곳서 출시 행사

삼성전자가 동남아(호주·뉴질랜드 포함)에 'SUHD TV'를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동남아에서 잇따라 'SUHD TV' 출시 행사를 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동남아시아 인구는 6억 이상으로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대륙인구와 맞먹는다. TV 시장 규모로 보면 중국, 북미, 서유럽에 이어 4번째로 큰 신흥 시장이다.

삼성전자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프리미엄 UHD TV시장에서 지난해 46.7%의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SUHD TV' 출시 행사는 말레이시아(9일), 호주(14일)에 이어 다음달 초까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9개 지역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SUHD TV JS9500과 JS9000을 순차적으로 출시해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 IT매체 '하드웨어존'은 '삼성전자가 SUHD TV로 UHD 시장을 주도한다'고 했고, 말레이시아 영자 신문 '더 스타'는 'SUHD TV가 프리미엄 UHD 콘텐츠와 시청경험을 한 차원 높였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론칭 이후 동남아 전역에서 진행되는 로드쇼를 통해 SUHD TV의 화질을 고객들이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행사를 지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LG전자 'G4' 스펙보다 가치에 집중

AP 다운그레이드 선택
"효율성 극대화 조점"

LG전자가 주력 스마트폰 G4의 핵심 전략으로 최고의 스펙보다 소비자의 가치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G4에 퀄컴의 최신 스냅드래곤 810칩셋 대신 스냅드래곤 808칩셋을 적용했다. 최근 폰아레나·나인투파이브구글 등 해외 IT 전문 매체들은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G4에 스냅드래곤808을 탑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 칩셋은 당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64비트 옥타(8)코어 스냅드래곤810보다 낮은 사양의 1.8GHz 64비트 헥사(6)코어프로세서다. 칩셋 구동용으로 4개의 ARM코텍스A53 2개의 코텍스A57코어가 사용됐고 아드레노418그래픽칩(GPU)이 들어간다.

23일 LG전자측은 이같은 구성은 다운그레이드가 아닌 소비자들을 위한 최상의 선택이라는 반응이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숫자만으로 보면 810이 최신 제품으로 보일 수 있지만 두 제품 모두 비슷한 시기에 개발해 출시한 제품"이라며 "다만 응용 프로그램 구동 속도와 소비전력에서 조금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스냅드래곤 810이 가격은 많이 먹는 스포츠카라면 스냅드래곤808은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생각하면 된다.

대신 카메라 성능은 경쟁사 대비 최고 제품을 선택했다. 조리개값 F1.8의 OIS적용 1600만 화소 후면카메라와 8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를 탑재한다.

LG전자는 G4의 카메라 사용자경험(UX)으로 셔터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전문가 모드도 지원한다. 이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 나 애플의 '아이폰'이 현재까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이다.

결국 LG전자는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는 퀄컴의 최고급 모바일AP를 탑재한다는 고정 관념을 깨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실리를 챙겼다.

이는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이 강조한 '소비자에 맞춘 혁신 상품 개발하라'는 특명과 일맥상통했다. 구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LG전자는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한발 앞선 준비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혁신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수익성 기반의 성장을 실현하고 미래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양성운기자 ysw@

LG전자, 오늘부터 'LG워치 어베인' 판매

LG전자가 스마트워치 'LG 워치 어베인'을 이동통신 3사를 통해 24일 국내 출시한다.

LG 워치 어베인은 지난 21일 발표된 최신 구글 안드로이드 웨어 버전을 세계 최초로 탑재했다. 이 버전에 탑재된 와이파이 연결 기능은 스마트폰이 통신망에 연결돼있고 스마트워치가 와이파이 범위 안에 있으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져도 연결이 끊기지 않는다. 집에 스마트폰을 두고 와도 와이파이가 되는 사무실에서 스마트워치를 끊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메탈 보디와 천연가죽 스트랩을 적용했다. 22mm 표준 스트랩 규격을 적용해 일반 시계용 스트랩으로 교체할 수 있다.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사장)은 "LG 워치 어베인은 아날로그 감성을 살린 프리미엄 디자인 구현에 심혈을 기울인 스마트워치"라며 "웨어러블 시장에서도 업계가 될 수 있도록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LG전자는 24일부터 시계 유통 전문채널 스타럭스를 통해서도 주요 백화점 내 시계점 10여 곳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김준희기자

한진칼·정석기업 합병 결의
조양호 보유 지분 17.8%↑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이 15.6%에서 약 17.8%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합병을 결의했다.

정석기업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건물관리 등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문과 ㈜한진 지분 21.63%와 와이키키리조트호텔 지분 100%를 보유한 투자부문으로 분할한 뒤 한진칼에 투자부문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양사 합병은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투자부문이 각각 1대 2.36의 비율이다.

한진그룹은 2013년 8월 투자사업을 총괄하는 한진칼과 항공운송 사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하면서 본격적인 지주회사 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까지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한진→한진칼→정석기업→㈜한진'의 순환출자 고리를 '증수일가→한진칼→정석기업, 대한항공·㈜한진'의 수직구조로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번 합병으로 ㈜한진 지분이 한진칼로 넘어가면서 정석기업에서 ㈜한진으로 이어지던 연결 고리도 끊어진다.

합병이 완료되면 ㈜한진은 한진칼의 자회사가 되고 ㈜한진의 종류 자회사들은 한진칼의 증손회사에서 손자회사로 바뀐다. 동시에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100% 이외에 계열회사 지분 보유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 제한규정 요건도 해결된다.

그러나 지주사로 온전히 전환하려면 합병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다. 일단 ㈜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 7.95%를 처분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한진이 지난해 12월 한진칼 지분을 처분할 당시의 '블록딜' 방식으로 해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소리기자 [illegible]

"차세대 플랫폼 혁신… 기업가치 100조 달성"

장동현 SKT사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
통합 미디어 플랫폼 진화
2018년 1500만 고객 확보

"과거처럼 플랫폼을 독점하는 상황에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앞으로는 개방형으로 나아가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하여 시너지를 이뤄낼 것이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이 새 가치 제고를 위한 고객 중심의 '차세대 플랫폼 혁신' 의지와 2018년 기업가치 100조원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 사장은 23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래 성장의 핵심동력인 '3대 차세대 플랫폼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3대 차세대 플랫폼 혁신' 전략으로 3C 기반 생활가치 플랫폼 개발, 통합 미디어 플랫폼 진화, IoT 서비스 플랫폼 육성을 제시했다. 이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장 사장은 3C 기반 생활가치 플랫폼에 대해 "콘텐츠(Contents), 커뮤니티(Community), 커머스(Commerce)등 다양한 사업군들을 묶어 플랫폼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며 "연내에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사옥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차세대 플랫폼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통합 미디어 플랫폼 진화는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유무선 미디어 서비스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개인화하는 미디어 산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뉴미디어 서비스를 모색하는 등 선도적인 통합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해 오는 2018년까지 1500만 고객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사장은 "고객의 생활가치를 극대화하고 비즈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성장 동력을 발굴함으로써 국가경제 부흥의 모뉴먼트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제한적 통신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인정받는 회사, 전 국민의 일상에 서비스를 위해 찾는 회사로 변신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고객, 산업, 사회 모두가 공유했던 새로운 가치를 현실로 만드는 차세대 플랫폼 혁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당초 2020년에서 2년 앞당긴 2018년까지 SK텔레콤의 기업가치 100조 원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hm@metroseoul.co.kr

KT, 세계 첫 '다중입출력' 실외 시연 성공

차세대 5G 기술 선도

KT는 송수신 안테나 수를 증가시켜 기지국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체감 속도와 수용 인원을 증가시키는 5G 핵심 기술 'Massive MIMO(다중입출력)'의 실외 시연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KT와 화웨이가 공동으로 시연에 성공한 Massive MIMO는 기존 2~4개 안테나만 이용하는 LTE와 달리 100개 이상의 안테나 소자를 활용해 수신 개의 데이터 채널을 동시에 전송함으로써 획기적으로 기지국 용량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체감속도와 커버리지 내 수용 인원을 늘리는 장점이 있다.

KT 직원들이 5G 기술 'Massive MIMO(다중입출력)'를 실외 시연하고 있다. /KT제공

전 세계 통신사업자들과 장비 제조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이번 Massive MIMO 외부환경 시연은 중국과의 5G 글로벌 표준화 협력의 일환으로 중국 현지 LTE 기지국에서 했다. 128개의 안테나와 최대 16개 데이터 채널 전송, 3D 빔포밍 기술을 적용해 상용 LTE 단말들로 기존 LTE 대비 기지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용량을 5배 향상하는 측정 결과를 선보였다.

이번 시연을 통해 KT는 5G 네트워크에서 초고속 전송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지국 핵심 기술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 5G 기술개발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초석을 다지게 됐다. /정문경기자

KT 'G스타일로' 단독 출시

KT는 LG전자의 'G Stylo'를 전국 올레 매장과 올레샵(shop.olleh.com)을 통해 오늘부터 단독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G Stylo는 5.7인치의 대화면에 휴대성과 사용성, 기능성, 터치 성능 등이 강화된 스타일러스 펜을 탑재해 프리미엄 노트 기능이 강조된 LG전자의 스마트폰이다. 색상은 티탄, 화이트 2가지이며 출고가는 51만7000원이다.

KT는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의 'G Stylo'를 경제적으로 개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혜택을 준비했다.

구매 고객들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휴대폰 할부원금의 최대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쓰지 않은 제휴 포인트로 무제한 할인 슈퍼세이브카드를 통한 최대 36만원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LGU+ '캔디크러쉬소다' 아이템 쏜다

LG유플러스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사고객 모두에게 구글플레이에 접속만 해도 '캔디크러쉬소다'의 아이템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내 구글플레이에 접속하는 LG유플러스 고객 모두에게 '캔디크러쉬소다'의 '롤리팝 해머' 3개를 증정하며 행사는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LG유플러스 고객이 캔디크러쉬소다에서 휴대폰 결제로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결제 금액에 상관없이 초강력 아이템 '롤리팝 해머' 3개를 다음달 5일까지 제공한다. /정문경기자

| 시승기 | 토요타 '프리우스 V'

프리우스V 내부 /한국토요타 제공

넓어진 실내… '가족형' 탈바꿈

토요타의 프리우스는 여태껏 와 가족을 위한 차라는 느낌이 들었다. 차체를 늘려 내부를 넓혔다. 하이브리드의 뛰어난 연비는 그대로 유지했다. 연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차 프리우스의 결정판 '프리우스V'를 시승했다.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몰에서 출발해 서울춘천고속도로를 타고 춘천 '수녹원' 체어드가든을 찍고 돌아오는 왕복 127km 구간을 주행했다. 봄 소풍을 나온 듯 평탄한 코스였다.

프리우스V의 외관 디자인은 프리우스의 패밀리룩을 반영했다. 사다리꼴 형태의 검정 하부 그릴은 차체를 낮아 보이게 해 안정적인 외관을 완성한다. 하부 그릴과 연결된 범퍼 모서리는 전면 디자인에 역동성을 가미해 전면부의 우둔한 느낌을 상쇄했다. 총알 모양을 형상화한 디자인은 공기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공기저항계수(Cd)는 0.29로 높은 수준이다.

가족을 위해 만들어진 차답게 실내 공간은 넉넉하다. 기존 프리우스에 비해 차체 길이는 165mm, 차체 높이는 85mm 늘었다. 뒷좌석에는 15mm씩 12단계로 조절되는 시트 슬라이드와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 장신의 남성도 여유롭게 승차할 수 있다.

몸집이 커졌지만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놓치지 않았다. 연비는 여전히 훌륭하다. '에코 주행 모드'로 춘천까지 달렸을 때 21.8km/ℓ가 나왔다. 시속은 70km 안팎을 유지했다. 엔진 정지 상태에서 주행하는 'EV 모드'로 달릴 때는 엔진 소음과 진동 없이 노면 잡음만 들렸다. 토요타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정숙했다.

다만 파워트레인(엔진+변속기)이 기존 프리우스와 동일하다 보니 커진 차체를 감당치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 '파워 모드'로 달려도 속도감은 만족스럽지 않다. 연비도 현저히 떨어진다. 춘천에서 잠실까지 빠르게 차를 몰며 가혹하게 달리자 14.2km/ℓ가 나왔다. 최고출력은 136마력으로 기존 프리우스와 같다. /춘천=양소리기자 sound@

시내 후보지 윤곽… 불 붙은 면세점 전쟁

63빌딩·용산 아이파크몰·강남 무역센터점 등 선정

유통 대기업들의 서울 시내면세점 후보지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사업권 획득 경쟁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23일 한화갤러리아는 시내면세점 후보지를 여의도 63빌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서울 시내부지를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와 관광 인프라 등 인접 지역의 환경과 지역 발전 측면을 고려해 63빌딩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화갤러리아는 면세점 9900㎡(약 3000평) 내외의 규모에 63빌딩 내 쇼핑, 엔터테인먼트 및 식음시설 2만6400㎡(약 8000평)의 면적을 연계해 63빌딩을 쇼핑 플레이스(총 3만6000㎡·1만1000평 내외)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한화갤러리아는 63빌딩이 시내면세점으로 선정 시 서울 서남권 지역의 관광 진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돼 있는 관광객을 분산시키고 주변 노량진 수산시장, 선유도공원, 한강공원으로의 관광객 유입과 함께 국회의사당, IFC몰 등의 주변 관광 인프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는 "갤러리아가 명품관과 면세점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와 63빌딩 인프라를 결합,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랜드마크 쇼핑 플레이스의 재연으로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반드시 획득하겠다"고 말했다.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은 합작법인 HDC신라면세점을 설립하고 용산 현대아이파크몰을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광주까지 개통한 호남선KTX의 출발점이라는 이점과 함께 신라면세점의 운영 노하우를 접목 유커 쇼핑의 세계적 명소로 키워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용산에 시트 들어설 면세점이 침체에 빠진 용산전자상가와 주변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강남 소재의 무역센터점을 면세점사업권 후보지로 내세웠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코엑스 단지는 지난해 12월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관광특구로 지정된 데다 컨벤션센터와 특급호텔, 카지노, SM타운 코엑스몰, 백화점, 도심공항터미널 등이 있어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롯데와 신세계, SK네트웍스는 아직 부지선정에 고심하고 있다.

롯데는 면세점 후보지로 동대문 롯데 피트인과 롯데몰 김포공항점, 가로수길, 이태원·신촌 등을, 신세계는 중구 소공로 백화점 본점과 강남점을, SK네트웍스는 신촌 홍대 지역과 을지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제시한 시내 면세점 평가 기준 중에서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는 150점으로 다른 평가요소에 비해 비중은 높지 않지만 업계 간 차이가 두드러질 수 있는 대목"이라며 "어로 인해 업체마다 후보지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KGC인삼공사의 정관장은 본격적인 골프시즌을 맞아 23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써닝포인트 컨트리클럽에서 홍삼정 에브리타임으로 홍[illegible] 이벤트를 열었다. /정관장 제공

동서식품 '맥심 헤리티지 캠페인'

동서식품(대표 이광복)은 2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청과 문화재 지킴이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동서 관계자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맥심 헤리티지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동서식품은 이를 위해 오는 6월 맥심 커피믹스 패키지에 문화유산을 인쇄한 제품을 출시하고 관련 문화유산 정보를 담은 사이트와 모바일 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총 4억2000만원을 지원해 ▲문화유산 대표 축제 지원 ▲EBS 문화유산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청소년 대상 문화유산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유산 인문학 강좌 ▲문화유산 홍보 기념메달 제작 등을 후원하기로 했다.

OB·하이트, 롯데주류 견제 나섰다

'크림生 올몰트' 등 신제품 마케팅 강화

오비맥주와 하이트맥주가 있는 올몰트(All Malt) 맥주 시장 마케팅을 강화하며 롯데주류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갔다.

올몰트 맥주는 맥주 3대 원료인 맥아, 홉, 물 외에 다른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100% 보리 맥주를 말한다. 맥주 본연의 풍부한 맛과 향이 특징이다.

22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롯데주류가 지난해 4월 '물에 타지 않은 올몰트 맥주'를 콘셉트로 선보인 클라우드가 연간 기준 점유율 8.0%를 기록하며 업계 3위를 차지했다. 오비맥주 카스(32.3%)와 하이트진로 하이트(15.4%)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출시 시점을 고려하면 고무적이다.

롯데주류는 이 같은 시장 반응에 힘입어 지난달 클라우드 생산 물량을 5만kL에서 10만kL까지 늘렸다. 연간 20kL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제2공장도 짓고 있다. 제2공장이 완공되는 2017년에 롯데주류는 연간 30만kL의 생산이 가능하다. 330mL 기준 9억 900만병을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이는 맥주 시장에서 약 1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규모다.

업계는 롯데주류가 제2공장 완공과 함께 롯데의 강력한 유통망을 앞세워 본격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설 경우 맥주 시장 판도 변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오비맥주와 하이트맥주는 올몰트 맥주 관련 신제품 출시와 함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최근 올몰트 맥주인 맥스를 전면 리뉴얼해 '크림生 올몰트 맥스(이하 맥스)'로 출시했다. 기존 원료에 독일산 스페셜 몰트를 첨가하고 아로마 호프를 20% 이상 증량했다. '비열처리'라는 새로운 공법을 사용해 맥주 본연의 맛이 살아있도록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하이트맥주는 맥스를 생맥주로도 선보이고 유흥주점 마케팅도 강화한다. 2009년부터 매년 한정 판매 중인 '스페셜'을 시리즈물 형태 가정용 판매에도 집중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신제품 맥스는 국내 최초 올몰트 맥주인 맥스의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정용과 함께 유흥주점에도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비맥주도 지난해 11월 선보인 올몰트 맥주 '더 프리미어 OB'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더 프리미어 OB'는 독일 노블홉과 독일 특산 양조장 효모를 사용해 풍부하고 진한 맛이 특징인 독일식 올몰트맥주다.

/정은미기자 [illegible]

롯데마트, 베이비저러스 오픈

롯데마트(대표 김종인)가 경기도 수원 롯데마트 광교점에 세계 최대 아기용품 전문 매장인 '베이비저러스(BABIESRUS)'를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베이비저러스'는 1996년 뉴욕에 1호점을 오픈한 뒤 미국에서만 250여 개, 캐나다·프랑스·일본 등 17개 국에 67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세계 최대 아기용품 전문 매장이다.

회사측은 베이비저러스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토이저러스사와 1년간의 협의 끝에 수원 광교에 첫 매장을 오픈한다고 설명했다. 광교점을 포함 연내에 총 4개의 베이비저러스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이번에 오픈하는 베이비저러스 매장은 광교 신도시 도반베르디움 지하 1층에 위치한 롯데마트 광교점에 660㎡(약 200여평) 규모로 들어선다.

'유커 겨냥' 세븐일레븐 '알리페이' 결제서비스 도입

내달 전국으로 확대

세븐일레븐(대표 정승인)은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알리페이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에서 선보인 결제 서비스로 중국 내 전자 결제 점유율이 은련카드(11.4%)의 4배 수준인 48.8%에 달한다. 알리페이를 이용하는 전 세계 회원수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8억 2000만명이다.

세븐일레븐은 서울 명동과 제주도 국제공항 등 중국 관광객 방문이 잦은 10개 점포를 선정해 먼저 알리페이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달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이 지난 1분기 은련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약 7억원.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븐일레븐 김윤웅 음나채널 매니저는 "외국 관광객의 결제 편의를 위해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노입하기로 결정했다"며 "관광수입 증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llegible]

애경산업 30주년… '사랑과 존경'이 경쟁력

생활·뷰티 대표기업 우뚝 지난해 매출 4000억 성장

애경산업(대표 고광현)이 25일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애경산업은 애경그룹의 모태가 된 비누·세제 등의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올해 61주년이 된 애경그룹의 역사를 시작하고 발전시킨 주역이다.

1954년 6월 애경유지공업주식회사로 생활용품 사업을 시작한 애경그룹은 이 사업부문을 1985년 4월 25일 설립된 애경산업에 넘겼다. 이후 생활용품 사업을 이어가며 생활뷰티 기업 대표 회사로 자리매김했다.

글로벌 장기불황과 소비심리 위

고광현 애경산업 대표

축 등에서도 지난해 창사이래 처음으로 매출 4000억원시대를 열었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은 물론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등을 수상하며 올해 의미 있는 30주년을 맞았다.

이 같은 성과는 애경산업 만의 열정과 로열티로 몰입한 결과라는 평가다. 열정과 로열티는 기업명 '애경(愛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존경'이라는 기업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전 브랜드 제품이 '사랑과 존경'의 가치 있는 브랜드이자 경쟁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애경산업은 '사랑과 존경' 실현을 위해 감사경영, 독서경영, 칭찬경영 등을 통해 임직원이 체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창립 30주년 기념식의 테마도 '나눔'으로 정하고 행사를 진행한다. 본사와 서울지역 근무자 200여 명은 오전 9시부터 구로구민회관 앞 광장의 구로근린공원에 모여 나눔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총 30명의 다문화와 이주 가정 배경의 고교생에게 1년간 학비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갖는다. 고교생 1인당 평균 250만원씩 7500만원 수준으로 이 비용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됐다. 애경 측은 매년 1명씩 장학생을 추가해 창립 기념 횟수 만큼의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기념식에 참여한 200여명은 약 6억원 상당의 생활용품세트 5000개를 현장에서 제작한다. 생활용품세트는 서울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등을 통해 구로구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전달된다.

고광현 사장은 "우리가 이루어

내는 성과는 애경의 기업이념인 '사랑과 존경'이 브랜드가 되어 만들어진 결과"라며 "애경산업의 전 제품은 '사랑과 존경'의 가치 있는 브랜드이자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이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진기자 ks1215@metroseoul.co.kr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23일 드림웍스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쿵푸팬더, 슈렉, 드래곤길들이기, 마다가스카 캐릭터들을 주제로 한 '드림키즈세트'를 출시했다. /BBQ 제공

톡 쏘는 맛… 올해도 탄산수 열풍

시장 규모 1000억 전망 칠성·일화 등 라인업 강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탄산수 열풍이 거세다. 소비자들이 색다른 맛에 점차 적응하고 있는데다 소화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커지다자 신규 진출도 잇따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탄산수 시장 규모는 2011년 160억원에서 2013년 200억원, 지난해 300억원대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올해는 두 배가 넘는 800억~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롯데마트의 올해 1분기(1~3월) 탄산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의 2.7배(174%↑)로 늘었다. 편의점 CU의 탄산수 매출도 1월부터 이달 22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65% 신장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생수시장 내 탄산수 판매 비중은 30%인데 반해 국내 탄산수 판매 비중은 3%정도로 성장 가능성도 높다.

업체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탄산수 시장에 맞춰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100% 천연 자몽향을 넣은 탄산수 신제품 '트레비 자몽'을 출시했다. 트레비 자몽은 상큼하고 쌉싸름한 맛에 젊은 여성에게 사랑받는 자몽의 천연향을 담은 제품이다. 회사 측은 "탄산수 성수기를 앞두고 트레비 자몽 등을 앞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탄산수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화의 국내 최초 웰빙 탄산수 브랜드 초정탄산수는 '초정탄산수 레몬' 등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탄산수의 청량함에 레몬의 상큼함을 더하고 곡선 커팅 디자인 병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패키지다.

코카콜라음료는 지난해 탄산수 '씨그램'을, 남양유업은 제로 칼로리의 프리미엄 탄산수 '프라우'를 출시하며 시장을 선점한 트레비, 초정탄산수 때리에 등의 추격에 나섰다. /김보라기자 bora5693@

미샤, 'M 매직쿠션' 中·日 공략

에이블씨엔씨(대표 서영필)는 미샤 M 매직쿠션을 최근 중국과 일본에 론칭했다고 23일 밝혔다.

M 매직쿠션의 중국 이름은 '미샤 저디엔BB수앙'으로 '미샤 쿠션 BB크림'이라는 뜻이다. 950여 개 오프라인 매장과 미샤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며 타오바오T몰, 쥐메이 등에도 입점했다.

일본에서는 '미샤 쿠션 파운데이션'이란 이름으로 30여 개 미샤 매장과 일본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다. 판매 개시 이전부터 사전 예약 수가 1000개를 넘어서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달 안에 2만 개 이상 판매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일본 내 드럭스토어와 화장품 숍 세일 등에 입점을 추진할 계획이다.

롯데, '델몬트 디즈니 썸썸' 음료 출시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는 어린이에게 인기있는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한 혼합과즙 음료 '델몬트 디즈니 썸썸'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델몬트 디즈니 썸썸은 일반적인 저과즙 어린이음료와 차별화해 혼합과즙 100%를 넣어 풍부한 맛과 함께 성장기 어린이들을 위한 특수 영양성분인 칼슘과 비타민C도 첨가한 어린이주스다.

건강한 그린 주스 콘셉트와 함께 235ml 페트 형태로 오렌지백포도(오렌지과즙65%, 백포도과즙 35%)와 딸기포도(적포도과즙80%, 딸기과즙20%) 총 2종으로 구성됐다.

유커 덕에 훨훨 나는 '마스크팩'

"덤으로 주던 상품, 인기품목으로 우뚝"

유커(중국인 관광객) 효과로 마스크팩이 인기 품목으로 급부상했다. 매장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바구니에 넣어 놓던 상품에서 단독 매장까지 열 정도로 업계가 주목하는 시장이 된 것이다.

마스크팩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4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중국인 관광객의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자 업계는 전용 브랜드를 내는 한편 관광객이 몰리는 상권에서는 매대를 특별 구성하는 등 마스크팩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월 20~30대를 겨냥한 마스크팩 전문 브랜드 '디어패커'를 론칭했다. '화이트 워터 필링팩', '블랙티&블랙로즈 마스크' 2종만 판매하고 있었으나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구색을 확대한다. 4월 '클레이 마스크'와 '리프팅 마스크'를 비롯해 시트형 마스크 16종을 추가한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상징 매장인 '명동월드점'을 리뉴얼 하면서 눈이 잘 띄도록 매장 중앙에 마스크팩 매대를 설치했다. 그동안 춘절 등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만 매장 앞쪽에 배치하는 등 유동적으로 매대를 구성해왔다. 그러나 이번엔 중앙에 고정 배치키로 한 것이다. 또 금 성분 마스크팩의 경우 명동 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해외 공략 역시 활발하다. 리더스코스메틱은 내년까지 총 4개국 추가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 업체는 전체 매출의 90%가 마스크팩에서 발생하고 있다. 올해 인도네시아와 두바이에 지사를 설립하고 내년에는 남미와 인도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미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중국에서는 세포라 등 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논의하고 있다. 명동에는 2곳 매장도 운영 중이다.

/안수진기자 ks1215@

달콤한 동백향기, 지친 일상을 치유한다

선물같은 휴식 거문도 여행

여수 끝자락 천혜의 요새 여행 백미 '등대 산행코스'

여수하면 오동도가 떠오르지만 이젠 좀 봤다는 사람들은 거문도를 빼놓지 않는다. 여수의 끝에 있는 거문도는 날씨 예보를 들을 때마다 '남해 동부 먼바다'라고 불리는 곳이다.

여수에서 남쪽으로 114.7㎞, 제주에선 86㎞ 떨어져 있다. 그래서 맑은 날엔 한라산이 보여 육지보다는 제주도에 더 가깝다.

여수 여객선터미널에서 뱃길로 2시간을 달려가면 매력이 넘치는 거문도가 나온다. 주말을 이용해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하게 보이는 바다에 담담히 몸을 담그고 있는 거문도로 떠나보자. 선착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귓볼을 스치는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달콤한 동백향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거문도 여행의 백미는 거문도 등대를 보러가는 2시간 정도의 산행 코스다. 거문도가 유명세를 탄 것도 1905년 세워진 오랜 등대와 봄의 첫 소식을 전하는 동백나무 군락이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이곳의 약 70%가 동백나무라고 한다.

계절은 봄이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노란 억새풀이 마치 가을의 정취를 풍기고 있다. 남쪽 바람길을 따라 내려가면 신선바위도 나타난다. 보로봉에서 고도와 동도쪽을 바라보면 거문도의 아름다움이 보는 이를 사로잡는다. 인공적으로 만든 바다처럼 다리와 등대가 보이고 두 팔을 벌려 아늑하게 바다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이곳 바다로 들어온 배들은 어떤 공간에 붙여다져도 끄떡없을 것만 같다. 신선바위를 지나면 길을 따라 소원담이 이어진다. 소원담에서 올 한해의 소망을 빌고 소원탑의 한 귀퉁이에 돌을 올려 보는 것도 산행의 재미를 더해준다.

가볍게 산책하듯 내려가다가 양쪽 끝에 쪽빛 바다를 끼고 정갈하게 나무판자를 깔아놓은 '목넘어' 진교의 같은 여름이 되면 양끝에서 쉴새없이 넘나드는 파도로 인해 걷는 이의 마음을 한층 더 들뜨게 만든다. 그 때문에 산 이름도 수월산(水越山)이다.

수월산을 끼고 길게 뻗어 있는 동백터널 숲은 봄이 오면 거문도 숲길을 온통 검붉은 꽃길로 만든다. 몽환적인 동백숲을 지나면 마침내 1905년에 세워져 100년의 세월을 간직하고 있는 거문도 등대를 만난다.

약 100년이 넘은 등대라는 큰 의미를 가진 등대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평범한 모습이다. 오히려 등대에서 보는 바다와 바위, 그리고 나무숲과 함께 멀리 바라다보는 풍경이 여행자들의 가슴을 콩닥거리게 만든다.

거문도를 한 번 찾아온 이들은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운을 갖게 된다. 도시로 돌아와서도 그 여운은 한 동안 휴식처럼 잔잔한 감동을 줄 것이다.

/최치선기자 chisun@metroseoul.co.kr

관련 여행 정보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여수시청(www.yeosu.go.kr)
◆문의 전화
여수시청 관광홍보과 1599-2012
◆여객선이용
여수→거문도(07:40 출발→09:40 도착)
거문도→여수(15:00 출발→17:50 도착)
※ 동절기에는 하루 2회만 운항. 선박 운항 정보는 승선권 확인 요망
◆숙박
거문리(061-666-8066)
덕촌(061-666-4325)
서도(061)665-5466
◆인근 관광지
여수 오동도, 돌산도, 향일암, 사도 등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일원
◆특산물
거문도 쑥도, 갈치, 해풍 쑥 등
대량 구매 거문도 수협(061-665-8020)
※ 일반 소비자는 거문도 특품 유통제천 SPM(010-8471-2222)에서 소매 구입 가능

이화의대, 줄기세포 제조법 세계 최초 특허

김한수 교수팀, 편도선 조직서 줄기세포 추출 성공

이화의대 의료진이 세계최초로 폐기되는 편도선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데 성공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김한수(이비인후과 사진), 유경하(소아청소년과), 조인호(분자의과학과), 우소연, 조권아(미생물학과) 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은 이러한 내용의 '키메라 중간엽 줄기세포군 및 그의 제조방법'이란 특허(특허번호 제10-1508413호)를 세계최초로 등록했다.

편도선 절제수술은 우리나라에서만 연 4만건 이상 시행되는 다빈도 수술로 수술 후 제거되는 편도선 조직은 일부분이 병리조직검사에 사용될 뿐 대부분 폐기돼 왔다.

김 교수팀은 2011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그 결과를 세계 처음으로 특허 등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줄기세포는 크게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로 나뉘는데 임상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배아줄기세포 대신 주로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해 왔다.

편도선 줄기세포는 편도선 수술 후에 버려지는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으로 타 줄기세포와는 달리 공여자의 부가적인 고통이 없으며 한 명의 편도선 조직에서 추출 가능한 줄기세포의 양이 골수조직에서 2시간 동안 채취하여 나오는 줄기세포의 양과 거의 동일할 정도로 세포 생산성도 매우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숙련기자

에센시아 카사, 서울국제화장품博 참가

천연 에센셜 오일 등 선봬

에센시아 카사(www.esenciacasa.com)는 캔들스토리와 함께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국제화장품 미용산업박람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약 500개사가 참여, 700개 부스가 마련된 화장품 미용 산업 비즈니스 박람회다.

에센시아 카사는 엄격한 글로벌 기준의 국제향료협회(IFRA)의 표준을 준수하는 향료를 공급하고 있다. 전문 조향사가 각각의 용도에 맞게 향료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용기에 잠금장치를 만들어 유통 과정 중 외부 변질을 차단하고 있다. 100% 콩으로 만든 소이왁스를 이용한 프리미엄 소이캔들과 파인프래그런스를 이용한 프리미엄 디퓨저도 판매한다.

에센시아카사는 향수, 룸스프레이 등 향기관련 제품군과 아로마테라피용 천연 에센셜 오일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꽃구경도 식후경… 강강술래, 간편식 파격 할인

30일까지 온라인 전화주문 육포 곰탕 등 최대 50%↓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효만)는 30일까지 온라인쇼핑몰(ssllae.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봄나들이 포장상품 파격할인 행사를 벌인다.

고단백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박스(10봉)는 40% 할인된 3만6000원, 인기메뉴로 구성된 캠핑세트(한우불고기1kg+한돈 양념구이750g)는 44% 할인된 4만3000원에 판매한다. 삼은 보관이 가능하며 조리가 간편한 한우사골곰탕(500㎖ 3팩 6인분), 사육개장(500㎖ 3팩 6인분), 갈비탕(500㎖ 3팩 6인분)으로 구성된 보양식 삼둥이세트도 50% 할인된 3만원이다.

영양간식으로 구성된 럭키A세트(모짜렐라돈가스1.44kg+정찰한우떡갈비360g+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는 4만5600원, 럭키B세트(통등심돈가스1.44kg+정찰한우떡갈비360g+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는 4만2000원에 각각 40% 할인가로 내놓았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문화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명보아트홀 지하1층 다온홀에서 공연되는 드로잉 피노키오 공연 티켓(1인2매)도 증정한다. /김보라기자 kora669@

창립 37주년 푸르밀, 건강기능식 진출

비피더스 라인업 강화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대표 남우식)이 올해로 창립 37주년을 맞았다.

신준호 푸르밀 회장은 창립 37주년 기념사를 통해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에 부합한 새로운 식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건강기능식품 사업 분야 등에 진출할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푸르밀은 1978년 롯데유업 주식회사로 출발해 2007년 3월까지 약 30여 년간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햄우유로 발효유 비피더스, 검은콩이 들어있는 우유, 가나초코우유 등을 히트시키며 유제품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푸르밀 관계자는 "푸르밀 비피더스는 20년 동안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제품으로 앞으로 꾸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트렌드를 이끄는 건강발효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비피더스 라인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kora669@

유명IP 활용 빅마케팅… 모바일 게임유저 잡는다

잘 알려진 기존의 캐릭터와 대형 스타를 이용하는 등 대대적 마케팅을 활용하는 사례가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공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요즘 모바일 게임 시장의 흥행 키워드다. 대중에게 인기있는 유명 지적재산권(IP)을 확보해 단시간에 많은 이용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한 대규모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며 게임 띄우기에 나서는 사례도 속속히 이어지고 있다.

게임사들은 히트 이력이 있는 유명 게임 캐릭터들을 선호하고 있다. 이용자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캐릭터들이라 게이머들과 쉽게 친해지고 인기도 이미 검증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영화 '어벤저스'에 등장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슈퍼히어로를 게임 캐릭터로 녹여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넷마블게임즈가 선보인 '마블 퓨처파이트'가 대표적이다. 오는 30일에 국내외 동시 출시하는 마블 퓨처파이트는 아이언맨, 토르, 헐크 등 마블의 인기 히어로들을 소재로 제작했다.

넷마블, 마블히어로 소재 '마블 퓨처파이트'·차줌마 앞세운 '레이븐' 등

넷마블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마블과의 협업을 추진했다"며 "유명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마블의 모든 세계관과 캐릭터를 담는 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막대한 마케팅 예산을 지출해 모바일 게임을 흥행시킨 사례도 포착된다.

지난달 넷마블이 네이버와 손잡고 출시한 레이븐도 집행한 광고액이 만만치 않다. 넷마블은 레이븐 출시에 맞춰 배우 차승원과 유인나를 앞세워 TV 광고를 송출하는가 하면 지하철 옥외광고과 네이버 광고판을 레이븐 광고로 도배하다시피 했다. 차승원은 최근 차줌마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네이버는 "정확한 마케팅 규모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게임업계는 집행 규모 등으로 미뤄볼 때 약 150억원 가량을 투입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4년 '클래시오브클랜'과 2015년 '레이븐 위드 네이버'(레이븐)는 빅 마케팅이 대형 히트작을 만들어낸 대표 사례다.

클래시오브클랜을 서비스하는 핀란드 게임사 슈퍼셀도 국내 게임 시장에 TV 광고 열풍을 불러온 주인공이다.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최상위권과는 거리가 멀었던 클래시오브클랜은 TV 광고 및 옥외광고로 게임을 노출하며 국내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하며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연매출 1조8700억 원을 달성한 슈퍼셀이 한국을 비롯해 글로벌 게임 시장에 투입한 마케팅 비용은 6500억원에 이른다.

/정문경기자 hm3118@metroseoul.co.kr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 참관 신청 접수

넥슨은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 15'(NDC)의 참관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NDC 15는 다음 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넥슨 판교 사옥과 인근 발표장에서 개최된다. '매스와 인디'를 테마로 플랫폼과 장르, 규모, 그리고 성공여부를 떠나 업계가 그간 시도해온 참신한 실험과 도전들을 공유하고 한국 게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넥슨 임직원을 제외한 참관을 희망하는 모든 게임 업계 종사자, 학생은 NDC 공식 홈페이지(https://ndc.nexon.com)에서 이번달 28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올해 NDC15에는 '도미네이션즈'의 빅휴즈게임즈, '클래시 오브 클랜'의 슈퍼셀, '길건너 친구들'의 힙스터웨일, '살아남아라! 개복치'의 셀렉트버튼 등 해외 유명 개발사의 주요 연사들이 참석해 그들의 게임 개발 노하우와 향후 비전을 나눌 계획이다.

출시 전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공개토벌' '마비노기 듀얼' '야생의 땅: 듀랑고'는 물론 지금까지 한번도 공개된 적 없는 '삼국지 조조전 온라인(가칭)', '프로젝트 FM(가칭)' 등 넥슨의 다양한 신작 모바일 게임들이 첫 선을 보인다.

/정문경기자

엔씨소프트, '길드워2' '블소' 등 올 하반기 공개

온라인게임의 독보적 강자 엔씨소프트가 늦어도 올 하반기 차기작 공개를 앞두고 있어 게임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늦어도 올 하반기 텐센트를 통해 중국 시장에 블레이드&소울 모바일 버전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북미와 유럽에는 길드워2 확장팩을 출시한다. 확장팩은 신작을 출시하는 것과 같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길드워2'는 2005년 출시된 '길드워'와 함께 1000만 장 이상 판매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 게임이다. 특히 지난 1월 북미 게임전시회 팍스 사우스에서 '길드워2' 첫 번째 확장팩 '가시의 심장(Heart of Thorns)'을 공개해 주목 받았다.

확장팩은 새로운 직업 캐릭터와 스토리가 추가되고 고레벨 이용자를 위한 필드와 보스급 몬스터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레벨을 80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 밖에 자원과 병사를 모아 진행할 수 있는 공성전 등 PvP 길드 콘텐츠가 추가된다. 새로운 월드 맵도 공개된다고 알려지면서 게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현재 게임 유저를 대상으로 테스트 중인 온라인 슈팅액션 게임 '마스터엑스마스터'의 정식 서비스를 올해 안에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증권가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정호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엔씨소프트는 중국(블레이드&소울), 미국(길드워 시리즈)의 성과로 주요 해외시장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다"며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마케팅 파워 또한 가장 높아 해외 시장에서도 초기 유저 유입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어 "북미서 길드워2 확장팩 출시와 내년 4분기에는 국내에서 리니지이터널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여전히 유저들은 엔씨소프트의 작품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아 엔씨의 유저 유입력은 견조하다"고 판단했다.

/김보준기자

넷마블 대작 '크로노블레이드' 첫 영상 선봬

'레이븐'의 뒤를 이은 넷마블의 초대형 모바일 액션 RPG 기대작 '크로노블레이드'가 첫 모습을 드러냈다.

넷마블게임즈는 모바일 액션 RPG '크로노블레이드 with Naver(이하 크로노블레이드)'의 출시표 영상을 공개하며 정식 출시를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3분 가량의 영상에는 크로노블레이드 개발사 엔웨이의 공동창립자 데이브 존스와 개발총괄 스티그 헤드런드의 인터뷰 및 플레이 영상 등이 담겨있다. PC 게임 '디아블로1, 2'와 콘솔게임 'GTA(Grand Theft Auto)'의 개발총괄로 알려진 게임계의 두 거장은 영상을 통해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데이브 존스는 "한국 이용자들이 모바일 게임에서 가장 뛰어난 이용자이기 때문에 한국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하게 됐다"며 "크로노블레이드를 통해 모바일로 경험할 수 있는 콘솔급 액션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며 포부를 전했다.

디아블로를 창조한 액션 RPG의 전설 스티그 헤드런드는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한국형 대표 캐릭터 '세라'를 소개하고, 게임의 특징인 스킬 전투의 묘미도 설명하면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정문경기자

게임빌, 신작 '던전링크' 글로벌 구글·애플 동시 출시

게임빌이 신작 '던전링크'를 글로벌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동시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던전링크는 한 줄 잇기의 퍼즐-수집형 롤플레잉게임(RPG). 다양한 팀 조합을 통한 전략의 조화가 돋보이는 전략 퍼즐 RPG다.

영웅들이 판타지 세계를 구하기 위해 특별한 모험과 액션을 펼치는 스토리로 총 280여 종의 깜찍한 영웅과 동료 캐릭터가 등장하며 누구나 쉽게 플레이 할 수 있는 캐릭터 수집과 성장 시스템으로 대중 확산을 겨냥하고 있다.

캐릭터별로 근접형, 원거리형, 레이저형 등 고유 스킬과 상성이 있어 전략적 플레이의 깊이를 더해주며 경쟁 콘텐츠인 일일 던전, 보스 레이드 등도 인기 콘텐츠로 꼽힌다. 특히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번체) 기본 5개 언어 외에도 독일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등 14개 언어가 지원돼 세계 무대에서 통할 히트작으로 기대감이 높다.

던전링크는 게임빌이 미국 개발사인 '콩 스튜디오'와 손잡고 선보인 게임이다. 양사는 눈에 띄는 게임성과 글로벌 서비스 역량으로 글로벌 모바일게임 팬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문경기자

"맙소사!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첫 사극 주연 성공리에 끝낸 오연서

배우 오연서(28)가 작품에 이미지에 대해 억울해 했다. 그는 "나는 야망이 없는 사람이다. 되지 않는 일에는 욕심을 아예 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 때문에 오해를 받아요. 보기와 다르다는 걸 알리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지인들은 안타까워하죠. 어떤 시간에 평가받아야하는 게 연예인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차근차근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려 해요. 콤플렉스는 보조개예요. 없애려고 성형외과를 간 적도 있죠. 누군가에겐 매력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웃음)"

'빛나거나' 공주 신율 연기 호평 아버지 나이 대 팬도 생겨 신기

차기작은 트렌디한 로코 희망 10년 후 롤모델로 뽑히고 싶어

오연서는 지난해 MBC 드라마 '왔다! 장보리'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다. 최근 종영된 MBC 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에선 발해 마지막 공주 신율로 호평 받았다.

"장보리는 연기적으로 정말 생각을 많이 한 인물이에요. 근데 신율은 신나게 연기했어요. 특히 남성 팬이 늘었어요. (웃음) 신율은 남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죠. 제 아버지 나이 대 팬도 생겨서 신기해요. 팬카페에 자주 들어 가는데 40대 분들이 '팬미팅 가도 되나'고 물어보죠. 인스타그램(SNS)도 저 때문에 딸에게 물어봐서 배운 분들도 있대요."

슬럼프를 빨리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됐다. 그는 "감성적으로 변하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한다. 무엇보다 바쁜 게 최고다. 슬럼프를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동안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해요. 연예계는 재능이 있다고 다 되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적절한 운도 필요하죠. '맙소사!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라며 박차고 고마울 때가 많죠.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에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가족들이 큰 도움이 돼죠. 현재 엄마, 남동생과 함께 살아요. 저는 위해 서울로 왔어요. 아빠는 여전히 지방에 있어요. 의도치 않게 기러기 신세가 되셨어요. 저는 연기할 때도 가족들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죠. 그런데 주변에서 잘한다 할 때마다 연기 욕심이 커져요."

털털한 성격이다 보니 남자 친구들이 많다. '썸'이란 단어가 "가벼워서 싫다"는 오연서는 "진득하게 사랑하고 싶다"고 연애관을 고백했다.

"어렸을 때는 외모적인 부분을 봤는데 이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기혼가 된다면 안정적인 사람은 할래요. '빛나거나 미치거나'를 연기할 때도 몰입이 됐어요. 현대 극이면 다른 남자를 만나면 되잖아요. (웃음) 근데 사극이다 보니 한 사람만 사랑하다 죽는 설정. 썸이 없으니까 운명처럼 받아들여져서 집중할 수 있었어요."

미니시리즈부터 사극, 장편극까지 다양한 경험을 한 그는 차기 작으로 트렌디한 로맨틱 코미디를 희망했다.

"아직까지는 제가 잘 소화할 수 있는 캐릭터를 하고 싶어요. 밝고 재미있는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거요. 저 스스로도 캐릭터가 사랑스러워야 관심이 가더라고요. 10년 후에는 '배우'라는 호칭이 부끄럽지 않게 성장했으면 해요. 후배들이 롤모델로 뽑는 선배, 제작진에겐 믿음을 주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효진 기자 [illegible]

star bag

순진한 신입 PD 완벽 변신

배우 김수현이 순진한 신입PD로 첫 출근했다. 아버지 양복을 연상하게 하는 큰 옷을 입고 있다.

시무룩하게 앉아 있거나 초조한듯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이 궁금증을 자아낸다. KBS2 예능드라마 '프로듀사' 제작진은 김수현의 어리버리한 PD 변신을 극찬했다. 5월 8일 오후 9시15분 첫 방송.

스크린 데뷔작 개봉일 확정

그룹 틴탑 멤버 창조의 스크린 데뷔작 영화 '막걸스(가제)'가 다음달 21일 개봉된다.

창조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상남자' 강호 역을 맡았다. '막걸스'는 고등학생들의 풋풋한 우정과 사랑, 그리고 유쾌한 코믹 요소들로 구수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첫 정규 앨범 온라인 차트 점령

래퍼 산이가 데뷔 5년 만에 발표한 첫 정규 앨범으로 차트를 점령했다.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23일 오전 0시 공개된 산이의 정규 1집 '양치기 소년'이 각종 온라인 음원 차트를 휩쓸었다"고 밝혔다.

산이의 정규 1집 오프라인 발매는 24일이다.

가온차트 3관왕 저력 과시

가수 박진영이 12일 발표한 신곡 '어머님이 누구니'로 가온차트 주간차트 3관왕에 오르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가온차트 측에 따르면 17주차(4월 12일~18일) 가온차트 주간차트에서 '어머님이 누구니'는 디지털종합차트, 다운로드차트, 스트리밍차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고전·철학으로 바라보는 세상

화제의 책

인문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고전이 있다. 고전을 통해 세상을 이야기하는 눈여겨 볼 인문학 신간들을 추렸다.

◆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담론'(신영복 지음/돌베개)은 성공회대 석좌교수인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를 담은 책이다. 1989년부터 성공회대학에서 강의를 해온 신영복은 2006년 정년퇴임 후에도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강의를 계속해왔다. 이 책은 저자의 성공회대학 강의를 녹취한 원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04년 출간된 '강의'에 이은 10년 만의 저작이기도 하다. '담론'에서 신영복은 동양고전을 텍스트로 삼았다. 동양고전이 갖고 있는 풍부한 사상들이 세계 인식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텍스트는 새롭게 읽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경', '주역', '논어', '맹자', '한비자' 등의 고전을 현재의 맥락으로 오늘날의 과제와 연결해서 읽는다. 이를 통해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유연한 관점을 제시한다.

신영복의 대표 저서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출간하기까지의 과정도 이번 저서에 함께 담겨 있다. 징역살이의 고달픔과 괴로움뿐 아니라 편지를 쓸 당시의 심경도 서술했다.

◆ 삶의 지혜와 마음의 위안

'마음고전'(김환영 지음/은행나무)은 중앙일보 심의실장 겸 논설위원인 김환영이 그동안 읽어온 책들 가운데 삶의 지혜와 마음의 위안을 주는 명저들을 소개하는 독서 안내서다. 인도 우화집 '판차탄트라'부터 헨드릭 카네기의 '부의 복음', 알랭 드 보통의 '프루스트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법들'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현실의 문제들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 41권을 선별했다.

'탈무드', '잠언집', '맹자' 등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고전들도 있지만 저자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재해석해 낡은 자기계발서나 소설도 선별에 눈길을 끈다. 필사가의 눈으로 발견한 고전 속 명문장들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를, 어떤 것을 읽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마음과 고전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책이다.

◆ 철학으로 떠나는 여행

'시작하는 철학여행자를 위한 안내서'(심강현 지음/궁리)는 본격적으로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책이다.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철학용어부터 서양철학사의 굵직한 마디를 이룬 주요 철학자들의 사상, 철학사 전체를 파악하는 조감도까지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풍성하게 갖췄다.

저자는 전문 철학자가 아닌 의과대학 전공자다. 그러나 "몸의 구조와 기능을 공부하던 의과대학 시절 심리학을 비롯한 정신과학을 처음 접한 뒤 느낀 신선한 충격"으로 철학과 인문학을 가까이 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누구라도 접근하기 쉬운 철학 안내서를 만들었다.

/정병호기자 @metroseoul.co.kr

'막장 논란' 임성한 작가 은퇴

MBC "재계약 없다" 발표 하루만에 절필 선언

'막장 논란' 임성한 작가가 은퇴를 선언했다.

임성한 작가는 23일 한 매체에 "20년 동안 미련 없이 글을 썼다"고 절필할 것을 밝혔다.

장근수 MBC 드라마 본부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 제15차 임시회의에서 MBC 일일극 '압구정 백야'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지 하루 만이다.

장 본부장은 22일 회의에서 "드라마 작가들은 현재 작품이 끝날 때 재기약 계약을 하는데 (임성한 작가와는) 현재 계약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압구정 백야'의 윤리성, 폭력 묘사, 품위 유지 조항 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여한 위원 5명 중 4명은 '압구정 백야' 2월 9일 방영분 등 5회 분량이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관계와 극단적인 상황을 표현했다며 '프로그램 중지' 의견을 내놨다.

MBC '보고 또 보고'(1998)로 시청자와 처음 만난 임성한 작가는 MBC '온달 왕자들'(2000), MBC '인어 아가씨'(2002), SBS '신기생뎐'(2011), MBC '오로라 공주'(2013) 등 다수 작품을 통해 논란과 흥행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극 흐름과 맞지 않는 설정으로 비난과 패러디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MBC가 임성한 작가의 화제성만 이용하고 이제와서 버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5월 종영될 '압구정 백야'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방통심의위가 작가의 마지막 작품 '압구정 백야'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전효진기자 jeonh @m

손수현♥이해준 감독, 열애 인정

손수현

이해준

배우 손수현(27)이 이해준 감독(42)과 열애를 인정했다.

23일 손수현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꽃 측은 "손수현이 이해준 감독을 알고 지낸 지 1년 정도 됐으나 연인으로 발전한 건 두 달 정도 됐다"며 "상대방이 연예인이 아닌 감독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다.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이해준 감독은 "사생활이므로 말 할 이유가 없다"고 한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손수현은 2013년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의 일본 앨범 수록곡 '우다우타이노발라드' 뮤직비디오로 데뷔했다. 당시 한국의 아오이유우로 주목 받았다. 이후 영화 '신촌좀비만화-오피스', KBS2 '블러드' 등을 통해 연기자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열애설이 난 이해준 감독은 '안녕 유에프오', '아라한 장풍대작전'(2004), '남극일기'(2005) 각본을 썼다. 2006년 '천하장사 마돈나'로 감독으로 데뷔한 그는 '김씨 표류기'(2009), '나의 독재자'(2014) 메가폰을 잡았다.

/전효진기자 jeonh@

'연평해전' 스크린으로 만난다

실화 바탕 영화… 6월 11일 개봉 확정

실화를 바탕으로 한 휴먼 감동 영화 '연평해전'(감독 김학순)이 오는 6월 11일 개봉을 확정했다.

'연평해전'은 2002년 6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함성으로 가득했던 그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과 그들의 동료, 연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김무열, 진구, 이현우가 주연을 맡았다.

김무열은 원칙주의 리더 정장 윤영하 대위 역을 맡아 안정적인 연기를 펼쳤다. 진구는 헌신적인 조타장 한상국 하사 역으로 함께 했다. 이현우는 따뜻한 배려심을 지닌 의무병 박동혁 상병 역으로 선배 배우들과 호흡을 맞췄다.

개봉 확정과 함께 포스터와 예고편도 공개됐다. 포스터는 2002년 6월 한일 월드컵 당시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거리 응원 장면을 담아 실화임을 강조했다. 함께 공개된 예고편은 연평해전 당시 생존 대원들의 실제 인터뷰를 시작으로 캐릭터들을 소개해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만든다.

/정병호기자

매주 토요일 밤 11시
FashionN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5
Real Queen
tcast

metrosports

레알 마드리드의 치차리토가 2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준준결승 2차전 홈경기에서 후반 43분 짜릿한 결승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치차리토' 결승골 날개 펴다

레알 마드리드 UEFA 챔피언스리그 4강행 – 유벤투스·바르셀로나·뮌헨 확정

스페인 명가 레알 마드리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꺾고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준준결승 2차전 홈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지난주 원정 1차전에서 득점 없이 비겼던 레알 마드리드는 1·2차전 합계 1-0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제치고 4강에 올랐다.

0-0으로 팽팽하던 경기는 후반 43분 승부가 갈렸다. 페널티 지역 안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넘어지면서 정면에 있던 하비에르 에르난데스(애칭 치차리토)에게 패스를 내줬고, 치차리토가 오른발로 밀어 넣어 결승골을 뽑아냈다.

스타군단의 그늘에 가려 그동안 주전으로 나서지 못했던 치차리토는 최근 카림 벤제마와 가레스 베일의 연이은 부상 이탈로 기회를 잡았다. 치차리토는 지난 11일 에이바르전, 18일 말라가전 등 프리메라리가 2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이에 이날 결승골을 넣으며 레알 마드리드에서 확실한 주전으로 입지를 굳혔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후반 31분에 미드필더 아르다 투란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열세를 극복해내지 못했다.

지난해 이 대회 결승에서 연장 접전 끝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4-1로 꺾고 우승한 레알 마드리드는 2년 연속으로 유럽 클럽 정상으로 등극할 가능성을 부풀렸다.

유벤투스(이탈리아)는 AS모나코(프랑스)와의 원정경기에서 0-0으로 비겨 1·2차전 합계 1-0으로 12년 만에 UEFA 챔피언스리그 4강에 합류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팀이 이 대회 4강에 오른 것은 2009-2010시즌 인터 밀란의 우승 이후 올해가 5년 만이다.

이로써 올해 UEFA 챔피언스리그 4강은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와 FC바르셀로나(스페인), 바이에른 뮌헨(독일) 등 4개 팀으로 정해졌다. 4강 대진은 24일 결정된다.

올해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은 6월6일 독일 베를린에서 펼쳐진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강정호 날았지만… 추신수 '침묵'

2경기 연속 안타·타점 – 추, 사4구만 2개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메이저리그 입성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안타와 타점을 기록했다.

강정호는 23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메이저리그 홈경기에서 8번 타자와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1-0으로 앞선 2회 말 무사 2·3루에 등장한 강정호는 컵스 오른손 선발 제이슨 하멀의 시속 130㎞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좌익수 희생플라이를 쳤다.

전날 3타점 2루타를 쳐낸 강정호는 이 희생플라이로 2경기 연속 타점을 기록했다. 강정호의 시즌 4번째 타점이다.

4회에서는 선두타자로 나섰지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생산했다. 6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오른손 불펜 곤살레스 저먼과 맞선 강정호는 시속 151㎞ 직구를 정확히 받아쳤고 타구는 유격수 키를 넘어가 좌익수 앞에 떨어졌다.

이날 경기로 강정호는 시즌 타율을 0.176에서 0.211(19타수 4안타)로 끌어올렸다. 수비에서도 송구에 실수가 있긴 했지만 호수비도 펼치며 합격점을 받았다.

피츠버그는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 속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4-3으로 승리하며 2연패를 끊었다.

한편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는 2경기 연속 침묵을 지켰다.

추신수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인터리그 방문 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장해 2타수 무안타 1득점을 기록하고 몸에 맞는 공과 볼넷으로만 두 차례 출루했다.

전날 애리조나와 2연전 첫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로 돌아선 추신수는 2경기 연속 안타를 치지 못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135에서 0.128(39타수 5안타)로 떨어졌다.

텍사스는 네 차례나 병살타를 기록하며 애리조나에 5-8로 역전패했다.

/김성훈기자

손흥민 18호골 쏘나

25일 밤 10시30분 출격 이청용 출전 관심

손세이셔널 손흥민(23·레버쿠젠·사진)이 팀의 8연승을 위해 출격한다.

레버쿠젠은 25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독일 쾰른에서 FC쾰른과 2014-2015 분데스리가 30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이번 시즌 15승9무5패, 승점 54로 3위에 올라 있는 레버쿠젠은 최근 7연승으로 신바람을 내고 있다. 쾰른전에서 승리할 경우 2001-2002시즌 기록한 팀 최다 7연승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작성하게 된다.

특히 레버쿠젠은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3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날 경기를 잡아야 한다. 4위 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와 승점은 같고 골득실에서만 앞서기 때문이다.

손흥민의 득점포가 절실하다.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이 보유한 한국인 시즌 최다골(19골)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손흥민 역시 득점 사냥이 필요하다. 손흥민은 11일 마인츠전에서 시즌 17호 골을 기록한 뒤 지난주 하노버전에서는 잠시 숨을 골랐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에서 활약하는 기성용(26)은 25일 오후 11시 뉴캐슬 유나이티드 전을 준비한다. 스완지시티는 최근 1무1패로 주춤한 상태다.

최근 21세 이하 팀 경기에 출전하며 경기 감각을 조율한 이청용(27·크리스털 팰리스)이 같은 시간 헐시티전에 출전할지도 관심이다. /이승은기자

한화 김성근 vs SK 김광현 오늘 대전서 '사제대결'

'사제'의 연을 맺었던 김성근(73·한화 이글스) 감독과 김광현(27·SK 와이번스)이 적으로 만난다.

24일 대전구장에서는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한화와 SK전이 열린다. 김광현은 이날 선발로 예고됐다. SK 사령탑과 에이스 투수로 사제의 연을 맺은 이들은 이제 승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김성근 감독에게 김광현은 특별한 제자였다. 2007년 SK 사령탑으로 부임한 김 감독은 자신감 넘치는 고졸 신인 김광현을 처음 보고 "대한민국 에이스가 될 투수"라고 확신했고, 김광현은 한국을 대표하는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김광현은 지난해 12월 김 감독을 주례로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김 감독은 주례사에서 "김광현이 한화전에는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해 폭소를 끌어냈다.

하지만 냉정한 프로세계는 시즌 초부터 김 감독과 김광현을 적장과 상대팀의 에이스로 만나게 했다. /김민준기자

신세계 메트로신문 강탈

노인도우미 폭행 당하며 신문 뭉치째 뺏겨

회현역 CCTV 증거 확산

4월8일 오전 8시15분 서울메트로 4호선 회현역 1번카메라에 찍힌 영상 녹화물. 들고 있던 신문을 빼앗긴 메트로신문 배포도우미(오른쪽)가 도주하려는 신세계 직원과 다투다가(위)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아래) 모습이 보인다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의 '메트로신문 강탈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최초 발생지인 서울메트로 4호선 회현역 지하 6·7번 출입구 근처 폐쇄회로카메라(CCTV)에 대해 메트로신문사가 신청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오전 발부한 결정문에서 "서울메트로의 회현역장은 회현역 6·7번 출입구 방향 CCTV(관리명: 회현역 가 게이트 앞 카메라 1번)의 2015년 4월8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9시30분까지 영상녹화물을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메트로신문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 중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회현역 근처 방범용 CCTV 2대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해 이미 법원으로부터 승인 결정문을 받아놓은 상태다.

메트로신문측은 "신세계측이 범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당일 현장에 출동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들도 신세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아 자체적으로 관련 증거수집에 나섰는데 일단락된 것 같다"며 "이들 증거물을 토대로 신세계 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메트로신문사는 이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이들을 지휘한 남대문파출소장, 남대문경찰서장 등 서울경찰청 소속 4명의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메트로신문 관계자와 인근 상인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쯤 서울 남대문시장 인근 회현역 6·7번 출입구 부근에서 정체불명의 청년 2명이 메트로신문 배포도우미 최아무개(64)씨가 들고 있던 신문 10여부를 강제로 빼앗았다. 이들은 또 배포하려고 주위에 놔뒀던 신문 30여부도 탈취해 1명은 택시를 타고 도주하고 1명은 도우미 최씨와 지나가던 시민 고아무개(75)씨 등에게 붙잡혔다.

붙잡힌 괴청년은 그때까지도 신원을 밝히지 않고 신문사 직원이라는 등 횡설수설했다.

잠시후 112신고를 받고 남대문파출소 소속 경장과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하자 그제서야 이 청년은 자기가 신세계그룹 홍보실 직원 최아무개 대리라고 신분을 밝혔다. 그러나 현장출동 경찰관들은 이 사건을 경미한 상호폭행에 불과하다며 죄책을 그대로 방면하고 종결처리해버렸다.

김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천고)는 "2명 이상이 합세해 신문을 관리하던 배포도우미의 의사에 반해 신문을 가져간 것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특수강도의 죄책을 질 수 있으며 우편지와 관련한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복현명기자 hmbok@metroseoul.co.kr

리틀 소방관 체험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15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을 찾은 어린이들이 소화기 체험을 하고 있다. 24일까지 열리는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은 재난안전, 의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어울림 6개마당 총 73개 체험코너로 구성됐다. /뉴시스

메트로신문 강탈 사건경위 재구성

▲4월 8일 오전 8시 15분 메트로신문 배포도우미 최아무개(64)씨가 회현역 6·7번 출입구 지하 계단 근처에서 메트로신문을 배포

▲오전 8시 15분 19초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배포도우미가 잡고 있는 신문 한 뭉치를 탈취

▲오전 8시 15분 22초 남성이 신문을 탈취하자 배포도우미가 쫓아감

▲오전 8시 15분 26초 남성이 배포도우미가 가지고 있는 신문 한 뭉치를 힘으로 뺏음

▲오전 8시 15분 30초 배포도우미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옷을 잡음

▲오전 8시 15분 38초 남성이 배포도우미의 목을 세게 치고 배포도우미를 밀어냄

▲오전 8시 15분 40초~57초 회현역 6번 출구 지하에서 남성과 배포도우미 간 몸싸움

▲오전 8시 15분 58초 남성이 신문 한 뭉치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배포도우미의 가슴을 쳐 밀어냄

▲오전 8시 16분 남성이 신문 한 뭉치를 들고 6번 출구로 나가려 몸을 돌림

▲오전 8시 16분 5초 6번 출구로 나가자 배포도우미가 쫓아감

▲오전 8시 16분 8초 배포도우미가 나간 남자를 붙잡고 지하로 끌고옴

▲오전 8시 16분 15초~20초 남성이 배포도우미의 머리를 밀고 7번 출구 지하쪽으로 밀어냄

▲오전 8시 16분 22초~34초 배포도우미가 신문을 뺏으려고 하지 남성이 신문을 자기 몸쪽으로 당기고 배포도우미가 모자를 다시 쓰자 밀어내고 6번 출구로 도망

▲오전 8시 16분 34초~38초 남성이 7번 출구쪽으로 이동하자 배포도우미가 뒤에서 안음

▲오전 8시 16분 45초 남성이 배포도우미를 뿌리치고 다시 6번 출구쪽으로 도망가자 배포도우미가 따라감

▲오전 8시 17분 비디오 종료. 이후 6번 출입구 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남자가 합세했으며 그 중 1명은 신문을 근처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며, 나머지 1명은 배포도우미와 다른 시민에 의해 제모됨. 이 남자는 신분을 밝히라는 요구에 '신문사에서 나왔다'는 등 횡설수설함

▲오전 8시 35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남대문파출소 경찰이 붙잡힌 사람의 신원을 묻자 신세계 이마트 홍보담 직원 최아무개 주임이라고 했으며 잠시후 경찰은 경미한 상호폭행사건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 1며 최 주임을 방면하고 그대로 종결처리해버림

성완종 측근들 '모르쇠'에 수사 난항

압박수사 시 '별건 수사' 논란 부담… 저인망식 단서수집 거론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핵심 측근들을 소환, 단서 수집에 나섰으나 이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검찰은 12시간 소환조사를 끝낸 지 반나절 만에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광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22일 새벽에는 박준호(49) 전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는 한편 측근들 사이의 증거인멸을 막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이유에서다.

애초 수사팀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목숨을 끊기 전날인 8일 밤에 대책회의를 했던 이씨와 박 전 상무를 통해 비밀 장부 등 구체적 증언들을 수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입을 닫으면서 검찰 수사도 난관에 봉착했다. 공여자는 사망하고 수여자는 의혹을 부인하는 난제 속에서 이들의 진술이 첫 소환자를 가려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색해졌다. 수사팀으로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닥친 것이다.

성 전 회장의 죽음으로 별건수사 논란이 불어진 만큼 압박 수사방식도 수사팀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선 관련자와 자료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한 뒤 꿰어맞추는 '저인망식 단서 수집'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성완종 생전 '행적 지도'를 재구성 중인 수사팀의 행보와도 맞물려 수사의 활로를 열 수 있을 거란 얘기가 나온다.

/연미란기자 actio @